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

On the Recognition of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in
“Gwaenchanda(okay)”
- On the case of Vietnamese native speakers -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김연화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

지도교수　이 은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김 연 화

김연화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유 필 재　(인)

심사위원　김 윤 정　(인)

심사위원　이 은 섭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년　8월

감사의 글

삶의 변화를 주고자 한국어 교육학 대학원 생활에서 이 논문은 저에게 새로운 결실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실은 앞으로 삶의 희망이며 힘을 키우는 행복한 생활을 꿈꾸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시간을 기억하며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고민과 판단의 연속이었는데, 연구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체계와 학문의 틀을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이은섭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안소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르침과 지도 덕분에 연구논문은 교육 및 학습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나 하나씩 채워나가는 모습으로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답하겠습니다.

학기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유필재 교수님, 소래섭 교수님, 박경신 교수님, 김윤정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여유 기간에 학습 생활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양순 교수님을 비롯하여 지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의 시간을 함께하고 의지가 되어 준 대학원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들은 앞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저의 자부심과 긍지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함께하며 귀한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국문초록>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

한국어 학습자에게 ‘괜찮다’는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적절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문맥에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쓸 수 있는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해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괜찮다’의 대역어인 베트남어 ‘không sao’에 의존할 경우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조사는 2019년 5월에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2018년 6월 말에 한국어 공부를 위해 입국한 20대 남녀 90명이다. 이들은 한국어 초급 수준으로 대부분 한국어 능력 2급 자에 해당한다. 조사내용은 ‘괜찮다’의 의미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7개 항목과 담화 기능에 관한 설문 내용 12개 항목으로 그룹으로 5~20명이 모여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시에 통역자가 동석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분석에서는 설문지의 의미 부분과 기능 부분을 나누어서 다루었다. 각각 의미 부분과 기능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제시한 뒤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자세히 다루었다. 분석과 고찰에서는 주로 조사 대상자 90명의 응답 수(빈도)와 조영보(2014)의 한국어 모어 화자 1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조사 결과는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적절성 인식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대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문항 1은 전시회가 ‘좋다’와 ‘기타(나쁘지 않다)’, 문항 2는 병원을 차릴 정도로 재력이 ‘좋다’와 ‘충분하다’, 문항 3은 머리숱이 ‘충분하다’, ‘적절하다’, 문항 4는 음식의 맛이 ‘적절하다’, 문항 5는 시간이 ‘가능하다’, 문항 6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문항 2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항 1의 전시회가 ‘좋다’, 문항 4의 음식 맛이 ‘적절하다’, 문항 5의 시간이 ‘가능하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제시된 대화문에 대해 문맥을 이해하고 ‘괜찮다’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를 선택하는 응답률이 높았으

나, ‘충분하다’의 응답률은 낮았다. ‘적절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에서 높은 경우는 물론 그 이외의 문항에서도 ‘적절하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응답률이 낮은 항목은 ‘충분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이 높은 항목에서도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으로 베트남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한국어 문맥에 따라 광범위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괜찮다’의 베트남어 대역어인 ‘không sao’와 비슷한 의미일 때는 의미 파악이 보다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는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다. 우선, 문항 1의 걱정이 담긴 ‘확인하기’의 담화기능에 대해서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점이 반영되어 적절한 응답률을 보이지 못했다. 문항 2의 시간이 괜찮은가의 ‘허락 구하기’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문항 3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할 것에 대해 묻는 ‘괜찮다’에 관해서는 ‘허락 구하기’, ‘의견 말하기’, ‘기타(강요하기)’로 대답이 3등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도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을 보였으며 문항 4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 구하기’가 담긴 담화 기능에 대해서 적절한 인식은 낮지만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5는 조사에 오류가 있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문항 6의 ‘의견 말하기’, 문항 7의 ‘안심시키기’, 문항 8의 ‘안심시키기’, ‘기타(격려하기)’, 문항 9의 ‘안심시키기’, ‘기타(용서하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10의 ‘허락하기’에서는 담화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곤란했고, 문항 11의 ‘거절하기’와 문항 12는 더 한층 곤란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에 관해서는 ‘안심시키기’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에 관해서도 다소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에 관한 담화 기능의 인식에 관해서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không sao’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와 담화 기능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어 모어 화자에 대해서는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좋다’, ‘무사하다’, ‘상관없다’ 외에 ‘충분하다’의 의미가 있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담화 기능에 있어서는 우회적인 ‘거절하기’의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2
1.3 ‘괜찮다’의 담화 기능 연구 ····· 3
1.4 외국인 학습자의 ‘괜찮다’에 대한 의미와 담화 기능 인식 연구 ····· 5
1.5 본 논문의 구성 ····· 6

제2장 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 8
2.1 조사 개요 ····· 8
2.2 조사 대상자 ····· 8
2.3 조사내용 ····· 8
2.3.1 ‘괜찮다’의 의미별 사용빈도 ····· 8
2.3.2 ‘괜찮다’의 베트남 대역어 ····· 9
2.4 분석 방법 ····· 13

제3장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인식 조사 ····· 14
3.1 ‘괜찮다’의 의미 항목의 전체적 경향 ····· 14
3.2 개별 문항 분석 ····· 16
3.3 괜찮다’의 의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22

제4장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 ····· 24
4.1 ‘괜찮다’의 담화 기능의 전체적 경향 ····· 24
4.2 개별 문항 분석 ····· 26
4.3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 36

제5장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괜찮다’의 학습 방향 ····· 38
5.1 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황 ····· 38
5.2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괜찮다’의 학습 방향 ····· 38
5.3 한국어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교안 ····· 43

제6장 결론 - 의미 및 담화 기능 인식 분석 ····· 52

<참고문헌> ····· 54

<부록1> 설문 조사지(한국어판) ····· 56

<부록2> 설문 조사지(베트남어 모어 화자용) ····· 66

<영문 초록> ····· 76

<표 목록>

<표 1-1> ‘괜찮다’의 담화 기능 분류 ····· 5
<표 2-1> 문어 ·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괜찮다’의 의미별 빈도 ····· 9
<표 2-2> ‘괜찮다’의 의미 항목 및 대응되는 영어 · 일어 · 베트남어 ····· 10
<표 2-3> 한국어 ‘괜찮다’와 베트남어 ‘không sao’에 몇 가지 사용례 ····· 11
<표 2-4> ‘의미’ 문항 분석 ····· 12
<표 3-1> ‘괜찮다’의 의미 항목 조사 결과 ····· 14
<표 3-2> 의미 문항 1의 분석 결과 ····· 17
<표 3-3> 의미 문항 2의 분석 결과 ····· 18
<표 3-4> 의미 문항 3의 분석 결과 ····· 19
<표 3-5> 의미 문항 4의 분석 결과 ····· 20
<표 3-6> 의미 문항 5의 분석 결과 ····· 20
<표 3-7> 의미 문항 6의 분석 결과 ····· 21
<표 3-8> 의미 문항 7의 분석 결과 ····· 22
<표 4-1> ‘괜찮다’의 담화 기능 항목 조사 결과 ····· 24
<표 4-2> 담화 기능 문항 1의 분석 결과 ····· 26
<표 4-3> 담화 기능 문항 2의 분석 결과 ····· 27
<표 4-4> 담화 기능 문항 3의 분석 결과 ····· 28
<표 4-5> 담화 기능 문항 4의 분석 결과 ····· 29
<표 4-6> 담화 기능 문항 6의 분석 결과 ····· 30
<표 4-7> 담화 기능 문항 7의 분석 결과 ····· 31
<표 4-8> 담화 기능 문항 8의 분석 결과 ····· 32
<표 4-9> 담화 기능 문항 9의 분석 결과 ····· 33
<표 4-10> 담화 기능 문항 10의 분석 결과 ····· 34
<표 4-11> 담화 기능 문항 11의 분석 결과 ····· 35
<표 4-12> 담화 기능 문항 12의 분석 결과 ····· 36
<표 5-1> ‘괜찮다’ 수업의 교안 ····· 43
<표 5-2> ‘괜찮다’ 의미 7개 문항 수업의 교안 ····· 44
<표 5-3> ‘괜찮다’ 담화 기능 12개 문항 수업의 교안 ····· 47

<그림 목록>

<그림 3-1> ‘괜찮다’ 의미 항목에 관한 양국 모어 화자의 비교 ····· 15
<그림 3-2> 의미 문항별 빈도수(베트남) ····· 16
<그림 3-3> 의미 문항별 빈도수(한국) ····· 16
<그림 4-1> ‘괜찮다’ 담화 기능 항목에 관한 양국 모어 화자의 비교 ····· 24
<그림 4-2> ‘괜찮다’의 담화 기능 문항별 빈도수(베트남어 모어 화자) ····· 25
<그림 4-3> ‘괜찮다’의 담화 기능 문항별 빈도수(한국어 모어 화자) ····· 25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괜찮다’에 관한 의미 및 담화 기능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베트남 모어 화자가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동시에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모어 화자의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을 이해하는 메카니즘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베트남 모어 화자의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인식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괜찮다’를 맥락적으로 파악하여 그 의미를 적절히 인식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괜찮다’의 일대일 대역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다.

(2) 베트남 모어 화자의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다.

‘괜찮다’의 사전적인 의미인 ‘나쁘지 않다’, ‘문제 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면 담화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 외에 부정적인 의미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놓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베트남 유학생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지 분석하고 여기에 모국어의 간섭이 작용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3) 베트남 모어 화자의 ‘괜찮다’의 학습에 대한 언어 외적 접근도 필요하다.

‘괜찮다’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완곡 표현으로 쓰이는 면이 있으나 베트남 모어 화자의 언어 습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괜찮다’의 광범위한 사용은 ‘낙천적’ 또는 ‘얼버무림’과 같은 한국 문화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바, 베트남 모어 화자의 언어적 환경과 비교하여 언어 외적 요소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1.2 선행 연구

‘괜찮다’는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도 초급 단계부터 도입되는 중요 어휘이다[1]. 그러나 ‘괜찮다’의 의미가 다양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적절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괜찮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상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다방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담화 자료를 기반으로 담화 기능으로 분류하고자 한 연구(서희정 2005, 한지민 2012, 조영보 2014, 왕원원 2012)가 있고,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괜찮다’의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에 접근하고자 한 연구(박은하 2016)도 있다. 전자의 연구 중에서 조영보(2014)에서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으로 의견 말하기, 허락하기, 안심시키기, 거절하기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후자의 박은하(2016)에서는 ‘괜찮다’의 의미 및 기능을 6가지[2]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가 ‘괜찮다’의 의미를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괜찮다’의 연구는 다른 언어와의 대조연구도 활발하다. 중국어의 ‘沒關係’와 ‘괜찮다’의 담화 기능을 비교 분석한 원효설 · 최윤곤(2017)이 있고, 일본어의 ‘大丈夫’와 ‘괜찮다’의 의미 영역을 11가지로 세분하여 분석한 박유자 · 박복덕(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 ‘괜찮다’와 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일대일 대응형으로 간주할 경우 의사소통 상황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박유자 · 박복덕(2006:175)에서는 ‘大丈夫’에 비해 ‘괜찮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한국인이 타인의 잘못이나 자신의 과오에 대해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낙천주의에서 비롯 된다.”고 분석하였다[3].

베트남어 경우에도 ‘괜찮다’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어휘로 ‘không sao’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괜찮다’의 의미 영역과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

1) 국립국어연구원(2004:5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 ‘괜찮다’를 5개 대규모 말뭉치 어휘 빈도 목록 공통 중요 어휘, 26종 한국어 교재의 공통 중요 어휘, 12종의 기본 어휘 목록과 7종의 사전 중요어 목록의 공통 중요 어휘로 분류하고 있다.

2) 박은하(2016:46)에서는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괜찮-’의 의미와 기능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의미 및 기능	분포
1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거절하기)	7
2	꺼리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배려하기/가볍게 여기기)	122
3	별탈이 없다(걱정하기/걱정 안심시키기)	38
4	잘못/실수에 신경 안 쓴다(사과 수용하기)	4
5	보통 이상으로 좋다(긍정적 의견 말하기)	217
6	부탁을 하거나 받아들이기(허락 구하기/허락하기)	28
	합계	416

때문에 베트남 화자가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중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는 ‘괜찮다’가 가진 담화 기능을 주로 다룬 연구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3 ‘괜찮다’의 담화 기능 연구

‘괜찮다’의 의미를 다룬 연구 외에 담화 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도 상당수 있다. 서희정(2005)에서 ‘괜찮다’는 담화 상황에서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며 사용빈도 또한 높은 단어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괜찮다’의 담화 기능을 5개로 구분하였다. 즉, 의견 묻기에 대한 의견 말하기, 허가 구하기에 대한 불허 또는 허가하기, 걱정 및 불평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사과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제공하기에 대한 거절하기이다[4]. 나아가 일본인 학습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본인 학습자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여겨지는 ‘괜찮다’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5]. 즉, ‘괜찮다’는 한국인의 대화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실현되며 사용빈도 또한 높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괜찮다’의 기능과 아울러 각각의 기능들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며, ‘괜찮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국어 수업 또는 교재에서 다양한 대화

---

3) 박유자・박복덕(2006:175)에서는 ‘괜찮다’에는 일본어 ‘大丈夫’에서 보이지 않는 ‘책임회피・ごまかし(얼버무림)’의 기능이 있어 이는 일본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이라 언급하였다.

4) 서희정(2005:141)은 ‘괜찮다’는 상대가 제공 내용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하여 제공자 스스로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부담 경감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약화시키면서 거절의 기능을 갖는 매우 간접적인 거절 전략이라고 하였다.

5) ‘좋다, 나쁘다’ 등과 함께 평가 형용사로 분류되는 ‘괜찮다’(김정남 1998:76)에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담화 상황에서 애매한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괜찮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립국어연구원(1999:605, 2001:104), 박준하・김병선(1991:46), 서상규 외(2004:55), 신기철・신용철(1986:34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181), 학술진흥재단 한국어 능력 평가위원회(1997:215)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괜찮다’의 의미는 첫째,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둘째, ‘탈이나 문제, 걱정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임지룡(1992:158-160)에서는 반의 대립어는 대립의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김남탁(1998:24-30)에서도 반의 대립어에는 양극의 개념 영역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며 중간치(neutral being)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실제 조사에서 ‘좋다’와 ‘나쁘다’를 반의 대립어로 볼 때, ‘괜찮다’가 의미하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통 이상이다’는 화자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희정, 2002:483).

상황을 통해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허상희(2007)에서는 '괜찮다'의 화용적 기능과 특징을 연구하였으며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여 '괜찮다'의 화용적 기능을 제시하였다[6]. '괜찮다'의 기능으로는 '물음에 대한 대답하기', '사과/불평에 대한 수용하기', '제안에 대한 거절하기', '허가 구하기에 대한 수락하기'로 네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이수연(2008)에서는 '괜찮다'가 거절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수락표현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즉, 선행 발화가 제안일 경우에 응답으로 사용하는 '괜찮다'는 "그거 괜찮네, 좋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수락의 표현이며, "그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절로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사용 가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괜찮다'는 긍정어와 부정어 모두 잘 어울릴 수 있으므로[7]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재학(2011)의 연구에서는 대립적 의미 관계를 하나의 어휘가 포함하는 경우를 연구하였다. '괜찮다'는 응답 시에 '수락과 거절'의 대립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괜찮다'가 상호 상반된 의미 원인으로서 비언어적 원인 중 화자의 관점 대립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괜찮다'의 의미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한영사전과 한일사전을 분석하여 국어사전과 한국어 교육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괜찮다'의 세분화된 의미 항목을 확인하였다. 이중 언어 사전과 병렬말뭉치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의미 항목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 말뭉치를 분석하는 데에 대조언어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한지민(2012) 연구에서는 '괜찮다'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과 대답에서의 '괜찮다'의 담화 기능으로 나타났다. 담화 기능을 질문하기와 응답하기로 분류하였으며, 질문하기에는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기능이 있으며 응답하기는 다시 긍정적 응답하기와 부정적 응답하기로 나누어 긍정적 응답하기에서는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의견 말하기, 감정 말하기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부정적 응답하기에서는 거절하기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괜찮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서 쉽고 편안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그 쓰임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에 지적함과 동시에 단순히 '괜찮다'가 '문제없다'로 해석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영보(2014)의 연구는 사전에서 나타난 의미 항목을 말뭉치를 통해 검

---

6) 이해영(2002:52-60)에서는 비교문화적 화용론(cross-cultural pragmatics), 중간언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 화용언어학(pragmalinguistics), 사회화용론(sociopragmatics)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 임규홍(1998:165)에서 담화표지의 변이 과정이 '어휘적 어미-준담화적 의미→담화적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증하고 기존의 사전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추가로 발굴하여 의미 항목을 재정립하는 데에 공헌했다. 이로써 의미 항목은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의 6개로 정리하고 말뭉치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괜찮다'의 언어적 기능으로 살펴볼 때 '괜찮다'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돌려서 표현하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기능적 분류에서는 한지민(2012)과 마찬가지로 질문하기와 응답하기로 분류하고 질문하기에는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기능으로 분류하고 응답하기는 다시 긍정적 응답하기와 부정적 응답하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적절성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직관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괜찮다'의 담화 기능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 '괜찮다'의 담화 기능 분류

	서희정(2005)	한지민(2012)	조영보(2014)
긍정	의견 묻기에 대한 의견 말하기	의견 말하기	의견 말하기
	허가 구하기에 대한 불허 또는 허가하기	허락하기	허락하기
	걱정 및 불평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안심시키기	안심시키기(용서하기, 격려하기)
	사과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감정 말하기	
부정	제공하기에 대한 거절하기	거절하기	거절하기(예의상 거절하기)

<표 1-1>의 '괜찮다'의 담화 기능 분류에서는 서희정(2005), 한지민(2012), 조영보(2014)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공통적이고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담화 기능과 부정적인 담화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긍정적인 담화 기능을 의견 말하기, 허락하기, 안심시키기, 감정 말하기 등 4가지 담화 기능으로 분류되며, 부정적인 담화 기능은 거절하기만 해당하고 있다.

1.4 외국인 학습자의 '괜찮다'에 대한 의미와 담화 기능 인식 연구

다음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염두에 둔 '괜찮다'의 연구는 대조언어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원효설 · 최윤곤(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괜찮다'는 중국어 '沒關系'로 대응한다고 보고 있으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괜찮다'를 담화 상에서 사용할 때 많은 오류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통해서 '괜찮다'와 '沒關系'의 담화 기능을 분석한 결과 담화 상에서 '괜찮다'는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의견 말하기, 거절하기'의 기능이 있고, '沒關系'는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사과와 감사에 대한 의례적 응답,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기능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괜찮다'와 '沒關系'의 한중 대조를 위

해서 한국어 소설 4종과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본 소설 4종을 대상으로 ‘괜찮다’의 중국어 대응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소설에서 ‘괜찮다’가 담화에서 ‘안심시키기’의 의미일 경우에는 ‘沒關系, 沒大礙, 還好, 挺好, 沒事’와 대응하고, ‘허락하기’의 의미일 경우 ‘沒关系, 可以’와 대응하고, ‘거절하기’의 의미일 경우 ‘不必了, 不用了, 沒事兒’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어와의 비교 연구는 박유자 · 박복덕(2006)의 연구가 있다. 한국어의 ‘괜찮다’를 일본어의 ‘大丈夫, 平気, 気にしない, 問題ない, 構わない, 心配いらない’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괜찮다’가 쓰인 상황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괜찮다’와 ‘大丈夫’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조금 차이를 보이며 한국어의 ‘괜찮다’의 의미 영역이 더 넓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괜찮다’에는 일본어 ‘大丈夫’에 없는 ‘좋다’, ‘뛰어나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어의 ‘大丈夫’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또한 ‘안부’나 ‘책임회피, 얼버무림’의 기능도 일본어의 ‘大丈夫’에는 보이지 않는 기능이었다. 한국어의 ‘괜찮다’는 ‘배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지장이 없다’의 의미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일본어의 ‘大丈夫’의 경우는 ‘격려, 위로’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괜찮다’와 의미 인식과 관련된 베트남어와의 대조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베트남어 화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적절히 인식하는지에 관한 실태를 밝히는 것은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1.5 본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괜찮다’라는 어휘를 외국인(베트남)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학습자가 ‘괜찮다’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괜찮다’에 관한 연구 목적 및 의미와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전반적으로 개관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조사내용 및 조사 대상자 등을 기술한 뒤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괜찮다’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베트남의 모어 화자의 ‘괜찮다’의 의사소통의 기능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이들의 학습 경향을 도출한다.

5장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학습 방향이다. 이는

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황을 바탕으로 베트남 모어 화자를 위한 ‘괜찮다’의 교안을 제시한다.

6장 결론에서는 ‘괜찮다’에 의미 및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2.1 조사 개요

‘괜찮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영보(2014)의 설문지를 가져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한국어 학습력 1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울산과학대학교에 한국어 어학원에 재학중인 베트남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9년 5월 13일 ~ 5월 31일에 수차례에 나누어서 5명~20명씩 그룹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시에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인 동시 통역자가 동석하여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응답자는 설문 내용에 대한 통역자의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한 문항씩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응답자들 간의 사담은 가능한 한 제한하였다.

2.2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2018년 6월 말에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과학대학교 한국어어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100명의 베트남 유학생이다. 모두 한국 거주력은 1년 미만이다. 또한, 모두 한국어 공부를 목적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유학생으로, 성별은 구분하지 않았고(남자 68명, 여자 22명) 연령대는 모두 20대였다.

다만 조사에 있어서 베트남 모어 화자 100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중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0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9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은 2급 자가 대부분으로 서울대 한국어 교재 3A/3B를 수학 중이었다.

2.3 조사 내용

2.3.1 ‘괜찮다’의 의미별 사용 빈도

일상적으로 ‘괜찮다’는 매우 자주 듣고 말하는 어휘이지만, ‘괜찮다’의 의미별로 보았을 때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주로 사용되는 ‘괜찮다’는 이들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지, 비슷한 사용 분포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영보(2014:37)에 의하면 ‘괜찮다’의 의미별 사용빈도는 <표 2-1>과 같다.

<표 2-1> 문어 ·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괜찮다'의 의미별 빈도

의미 항목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좋다	104	34.67	183	17.09
2. 충분하다	18	6	28	2.61
3. 적절하다	3	1	5	0.47
4. 가능하다	15	5	122	11.39
5. 상관없다	91	30.33	210	19.61
6. 무사하다	55	18.33	463	43.23
7. 기타	14	4.67	60	5.6

<표 2-1>에서는 문어 · 구어 말뭉치로 나누어 '괜찮다'의 의미별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문어에서는 좋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순으로 그 쓰임이 활발하였으며 구어에서는 무사하다, 상관없다, 좋다, 순으로 그 쓰임이 활발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의 기능어는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담화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미를 가지고 담화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는 사용빈도가 낮아 외국인 학습자가 쉽사리 접하기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별 사용빈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3.2 '괜찮다'에 해당하는 베트남 대역어

한국어 학습자가 '괜찮다'를 습득하는 데에 모국어에 일대일 대역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에는 '괜찮다'에 대응하는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괜찮다'의 의미 영역을 7가지(기타 포함)로 구분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각 언어별 번역어를 제시하였다.

<표 2-2> ‘괜찮다’의 의미 항목 및 대응되는 영어 · 일어 · 베트남어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대역어	“괜찮다”	“okay”	“大丈夫”	“không sao”
의미 분류	1. 좋다	good	いい	tốt
	2. 충분하다	sufficient	十分だ	đủ
	3. 적절하다	suitable	適切だ	thích hợp
	4. 가능하다	can	出来る	có khả năng
	5. 상관없다	don’t mind	構わない	không liên quan
	6. 무사하다	safe	無事だ	vô sự
	7. 기타	-	-	-

이에 따르면 한국어의 ‘괜찮다’에 해당하는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대역어로써 영어의 okay, 일본어의 大丈夫, 베트남의 không sao가 존재한다. 다만, 7가지 항목으로 나눈 의미가 이들 대역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학습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를 보면, 일본어 ‘大丈夫’는 대부분 ‘괜찮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1. 좋다’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어에서도 ‘không sao’에는 1. 좋다, 2, 충분하다, 3. 적절하다, 4. 가능하다, 5. 상관없다, 6.무사하다 에 포함되는지를 확인되어야 상호 의미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괜찮다’와 베트남 ‘không sao’에 몇 가지 사용례를 살펴보자.

<표 2-3> 한국어 '괜찮다'와 베트남어 'không sao'에 몇 가지 사용례

	'괜찮다'의 사용례	'괜찮다'의 베트남 대응어	부가 설명
1	괜찮다. (No problem.)	Không sao!	Không은 부정, Sao은 뭔가 문제가 있음(심리적)
2	(상대방의 '죄송합니다'의 답변으로) 괜찮아요.	Không sao đâu!	đâu는 문말에서 상대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
3	(안심시켜며 격려) 괜찮아.	Không sao!	Không sao 사용은 의견 존중, 허락 유, 무를 뜻함
4	이 물 마셔도 괜찮아요?	uống nước này không sao chứ?	uống는 마시다, chứ 문말에서 의문/확인을 나타냄
5	아뇨, 제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Dạ không, con không đi được cũng không sao cả.	Dạ không은 아니요, đi 가다, không ~ được 못 부정문
6	(감기 증상 등이 호전되었는지) 괜찮아요?	Bạn không sao chứ? / Đỡ chưa?	đỡ는 병 상태가 가벼워지다. chưa는 이미 ~했습니까?
7	(넘어진 사람에게) 괜찮아요?	Có sao không?	có~không?는 정중한 의문문에 쓰임
8	(거절을 할 때) 괜찮아요.	Cảm ơn, tôi không cần.	이때 Không sao을 사용하면 의미가 미약하게 통함. 배려, 겸양의 뜻 포함

<표 2-3>과 같이 사용된 '괜찮다'에 대한 대부분의 베트남어 대응어는 'Không Sao'를 사용할 수 있다. (1)에서는 '좋다', (2)과 (5)은 '상관없다', (3)은 '적절하다', (4)은 '가능하다', (6)과 (7)은 '무사하다'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1)과 (3)번의 사용례가 베트남어 'Không Sao'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례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며, 이를 본 연구의 의미 분류 항목인 6가지의 의미 중에서 선택하게 되면 '적절하다'에 해당한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괜찮다'에 포함된 '충분하다'의 의미는 대응력이 없고, (8)과 같이 거절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경우에도 'Không Sao'가 대응력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괜찮다'의 대응어를 'Không Sao'로 고정하면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는 '적절하다'에 대한 인상이 강한 반면, '충분하다'의 의미와 거절의 '괜찮다'는 좀처럼 유추하기 힘든 의미 영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어 '괜찮다'와 'không sao'의 일대일 대응 관계는 <표 2-4>와

같다. 즉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충분하다' 외에는 모두 베트남어 'không sao'가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4> '의미' 문항 분석

어휘	의미	대역어	해당 의미(베트남어)
'괜찮다' 어휘	1. 좋다	không sao	tốt
	2. 충분하다	không sao	đủ
	3. 적절하다	không sao	thích hợp
	4. 가능하다	không sao	có khả năng
	5. 상관없다	không sao	không liên quan
	6. 무사하다	không sao	vô sự
	7. 기타	-	khác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즉, '괜찮다'의 의미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7개 항목과 담화 기능에 관한 설문 내용 12개 항목이다.

설문 내용에 제시된 '괜찮다'의 사용례는 모두 드라마 등의 실제 상황 대화형식의 사용례이다. 이 때문에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실제 대화형식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조사 시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베트남어 번역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대화 내용 부분은 한국어로만 제시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할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기 위해 베트남인 동시 통역사를 동석하도록 하였다.

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실제 설문 조사지는 부록 편을 참고한다.

(1) 설문 조사에서 사용한 예문을 실제 드라마 등에서 가지고 왔다.

(2) 설문지에 사용된 언어는 '괜찮다'가 사용된 한국어 대화 예문은 번역어가 제시되지 않지만, 그 외는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하였다. 즉, 제시된 한국어 대화 문장은 번역어 없이 스스로 이해해야 하고 그 외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응답해야 하는 선택지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다. 동석한 통역자가 설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한 후 한 문항씩 답변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3) '괜찮다'의 의미를 구분하는 항목은 한국어 예문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을 위한 선택지는 각 문항별 의미 항목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4) '괜찮다'의 담화 기능을 구분하는 항목은 한국어 예문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을 위한 선택지는 각 문항별 담화 기능 10가지 제시되어 있다.

2.4 분석 방법

분석에 있어서 설문지의 의미 부분과 담화 기능 부분을 나누어서 다루었다. 우선 의미 부분과 담화 기능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제시한 뒤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자세히 다루었다. 분석과 고찰에서는 주로 조사 대상자 90명의 응답 수(빈도)와 조영보(2014) 연구의 한국어 모어 화자 1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의미 분석 : 각 문항(1~7번)의 전체 응답수 빈도를 분석한 뒤 개별 문항을 다루었다. 이때 한국어 모어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2) 담화 기능 분석 : 각 문항(1번~12번)의 전체 응답 수 빈도를 비교한 뒤, 개별 문항을 다루었다. 이때 한국어 모어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3) 문제점

(i) 조사 대상자가 한국어 능력 2급 수준에 해당하므로 설문 조사의 각 문항에 제시된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ii)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관한 설문 내용에서 선택지 문항 구성이 외국인 학습자가 판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iii) '괜찮다'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설문 내용에서 선택지 항목이 의미 부분에 7개, 담화 기능 부분에 10개로 많았으므로 대동소이하게 느껴져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가 곤란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때문에 '괜찮다'의 의미를 파악했어도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답변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4) 문제점 보완

(i)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운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i) 먼저 교안 작성 시에

외국인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작성된 교안으로 수업이 도입 - 전개 - 연습 단계를 거쳐서 짝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ii) 우선 교안 설계 및 작성의 관계는 드라마의 실제 상황의 역할극을 이용한 짝 활동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3.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의 베트남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의미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대화문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괜찮다’의 의미가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중에서 하나만 응답하도록 하여 그 변별력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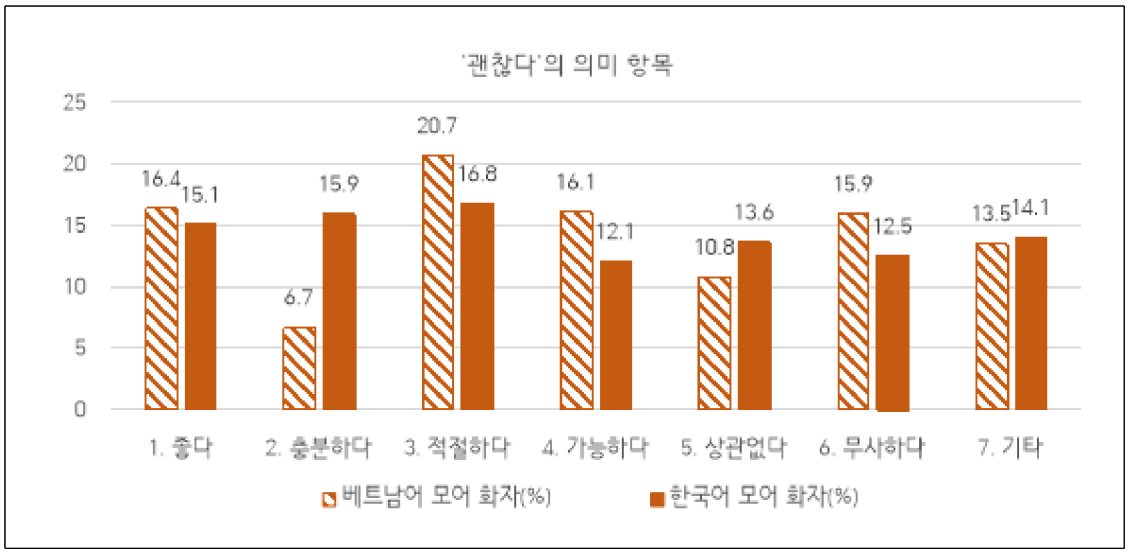
3.1 ‘괜찮다’의 의미 항목의 전체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괜찮다’의 의미 항목을 7가지로 분류하여 베트남어 모어 화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드라마 등에서 ‘괜찮다’가 사용된 7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의미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내용은 조영보(2014) ‘괜찮다’의 의미를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직관을 통해 의미 항목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용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베트남 모어 화자와의 데이터 비교를 위해 동일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1> ‘괜찮다’의 의미 항목 조사 결과

	1.좋다	2.충분하다	3.적절하다	4.가능하다	5.상관없다	6.무사하다	7.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n=90)	103 (16.4%)	42 (6.7%)	130 (20.7%)	101 (16.1%)	68 (10.8%)	100 (15.9%)	85 (13.5%)	629 (100%)
한국어 모어 화자 (n=100)	105 (15.1%)	111 (15.9%)	117 (16.8%)	84 (12.1%)	95 (13.6%)	87 (12.5%)	98 (14.1%)	697 (100%)

<그림 3-1> ‘괜찮다’ 의미 항목에 관한 양국의 모어 화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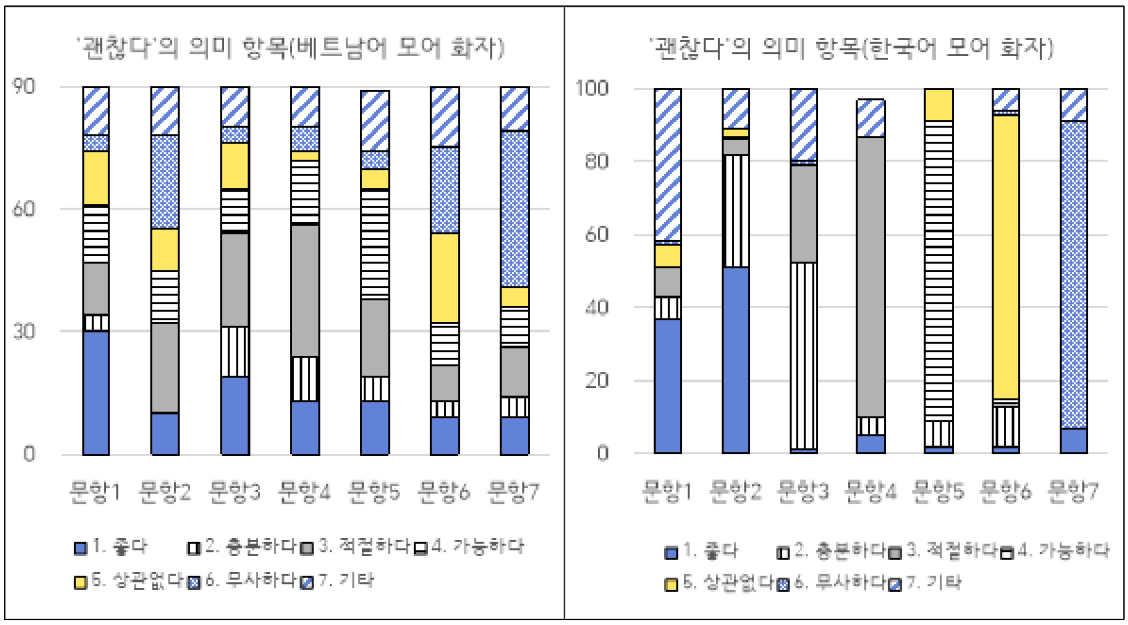


위의 <표 3-1>과 같이 7문항의 한국어 대화문 상황 전체에서 의미 항목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가 사용된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베트남 모어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조영보(2014)의 연구에 제시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데이터를 나란히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 3-1>과 같이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우선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적절하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좋다’, ‘가능하다’, ‘무사하다’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충분하다’에 대한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충분하다’에 대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의미 항목에 대한 빈도의 격차가 크지 않다.

다음으로 7개의 각 문항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 모어 화자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인다. 다음 <그림 3-2>과 같이 베트남 모어 화자의 문항별 빈도수를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그림 3-3>과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항별 빈도수를 제시하였다.

<그림 3-2> 의미 문항별 빈도수(베트남) <그림 3-3> 의미 문항별 빈도수(한국)



이에 따르면 <그림 3-3>과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문항별로 특정 의미 항목의 응답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문항 1의 경우는 '좋다'와 '기타'의 응답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문항 2의 경우 '좋다'와 '충분하다'의 응답률이 높고, 문항 3의 경우는 '충분하다', '적절하다', '기타'의 응답으로 3 분류 되어 있다. 그러나 문항 4 ~ 문항 7에서는 빈도수가 하나의 의미 항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문항은 대부분이 '적절하다', 문항 5는 대부분이 '가능하다', 문항 6은 대부분이 '상관없다', 문항 7은 대부분이 '무사하다'로 응답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조영보(2014)의 의미 항목 조사는 '괜찮다'의 의미를 한국어 모어 화자 직관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의미 항목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항목에 걸쳐 응답수가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특히 문항 1, 문항 2, 문항 3의 경우 베트남 학생들은 '괜찮다'의 경향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그 의미 항목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개별 문항 분석

여기에서는 '괜찮다'의 의미 항목 조사 문항별로 <표 3-2> ~ <표 3-8>에 제시하였다. 표에서는 문항별로 설문 내용을 제시하고 본 연구 조사 결과인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응답수와 조영보(2014)의 연구 조사 결과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3-2> 의미 문항 1의 분석 결과

문항 1	상황 설명: 사이가 별로인 지인의 전시회에서 인사하는 상황 인희: 관람객 / 경인 : 전시자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Tình huống chào hỏi trong buổi triển lãm (Hai người có mối quan hệ xấu) 관람객 [khách tham quan]: (다가와서:tới gần) 수고했어요. 박경순씨.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전시자 [tác giả triễn lãm]: 고마워.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30명 (33.3%)	4명 (4.4%)	13명 (14.4%)	14명 (15.6%)	13명 (14.4%)	4명 (4.4%)	12명 (13.3%)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37명	6명	8명	0명	6명	1명	42명	100명

위의 문항 1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괜찮다'의 의미로 '좋다' 37%로 나타났다. 또한 조영보(2014)의 조사에서는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여타의 의미를 <보기>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여 '꽤 좋다', '나쁘지 않다', '넉넉하다' 등 2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42명 전원이 '나쁘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는 위의 대화 상황에 대해 79%가 '좋다' 또는 '나쁘지 않다'로 의미를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좋다'로 대답한 경우는 30명(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하다' 13명(14.4%)이고 '가능하다' 14명(15.6%)이며 '상관없다' 13명(14.4%), '기타'는 12명(13.3%)으로 4개 항목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어 화자는 '좋다'는 의미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는 12명(13.3%)이나 기타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좋다~무사하다의 6가지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문항 1의 대화 상황에 대해 '좋다'와 '기타'를 선택한 베트남 모어 화자가 46.6%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79%에 비하여 낮지만, 비슷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의미 문항 2의 분석 결과

문항 2	상황 설명: 선을 보고 실망한 다현이 친구에게 불만을 말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Một chàng trai trẻ muốn hẹn hò với một cô gái anh ta thích. 다현[người con gái đã đi xem mắt]: 응. (치과 의사를 흉내내며 : bắt chước) “엄마, 어디가 맛있어?” 이러구 물어보더라. 땀 뻘뻘 흘리면서. 낼 모레 병원 차린다는 **괜찮은** 남자가 왜 여태 여자가 없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0명 (11.1%)	0명	22명 (24.4%)	13명 (14.4%)	10명 (11.1%)	23명 (25.6%)	12명 (13.3%)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51명	31명	4명	1명	2명	0명	11명	100명

문항 2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의미로 ‘좋다’ 51%, ‘충분하다’ 31%로 이 두 가지 항목이 82%를 차지한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는 문항 2의 상황을 ‘곧 병원을 차릴 정도’의 괜찮은 남자를 ‘좋다’와 재력이 ‘충분하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좋다’의 응답이 10명에 불과하고 ‘충분하다’는 응답자가 없다. 그 대신 ‘무사하다’로 대답한 경우와 ‘적절하다’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23명(13.3%), 22명(24.4%)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병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하여 ‘무사하다’를 선택한 경우와 ‘괜찮다’의 베트남어 ‘không sao’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인 ‘적절하다’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문항 2의 상황을 문맥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không sao’의 의미에 ‘충분하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 ‘적절하다’는 ‘딱 맞다’로 표현할 때 만족도가 꽤 높을 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충분하다’ 의미는 (‘적절하다’)보다 만족도가 낮을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언어의 의미적 차이점에 의해 간섭받게 된 결과로 나타났다.

<표 3-4> 의미 문항 3의 분석 결과

문항 3	상황 설명 : 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 남자를 처음 보고, 점수를 매기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tình huống đi gặp bạn nam lần đầu gặp và chấm điểm anh ta 다현[선을 본 여자: người con gái xem mắt]: '머리숱도(số sợi tóc) **괜찮고** 배도 안 나왔으니까. 좋다, 인심 썼다. 80점!'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9명 (21.1%)	12명 (13.3%)	23명 (25.6%)	11명 (12.2%)	11명 (12.2%)	4명 (4.4%)	10명 (11.1%)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1명	51명	27명	0명	0명	1명	20명	100명

문항 3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충분하다'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부족하지 않다)'가 14%로 나타났다. '충분하다'는 머리숱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태를 말하며 머리숱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고, '적절하다'는 머리숱의 정도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있다는 대답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적절하다'로 대답한 경우가 23명(2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좋다'는 19명(21.1%), '충분하다' 12명(13.3%)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다' 11명(12.2%)이며 '상관없다' 11명(12.2%) '기타'는 10명(11.1%)으로 3개 항목은 비슷한 응답수를 보였고 '무사하다' 4명(4.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적절하다'로 대답한 경우는 25.6% 가장 높았지만 '충분하다'의 대답이 13.3%로 낮게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의미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không sao'의 의미에 '충분하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어에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적절하다'가 높은 만족을 표할 때 사용되므로 높게 나타났으나 '충분하다'가 낮은 만족도를 일 때 사용함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충분하다'가 만족도가 높고 '적절하다'는 보통 이상이라는 의미이므로 양국 간의 언어적 의미 차이점에 의해 간섭받게 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의미 문항 4의 분석 결과

문항 4	상황 설명: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의 맛이 이상해서 며느리가 다시 간을 맞춘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tình huống mẹ chồng làm đồ ăn có vị lạ nên con dâu đã nêm nêm lại cho vừa. 며느리(con dâu): 어머님,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3명 (14.4%)	11명 (12.2%)	32명 (35.6%)	16명 (17.8%)	2명 (2.2%)	6명 (6.7%)	10명 (11.1%)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5명	5명	77명	0명	0명	0명	10명	97명

문항 4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적절하다'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에는 맛이 적절하지 않았으나 간을 보아 적절해졌다는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모어 화자는 '적절하다' 대답이 32명(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능하다' 16명(17.8%), '좋다' 13명(14.4%), '충분하다' 11명(12.2%), '기타' 10명(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문항 4의 경우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적절하다' 대답이 35.6%로 다소 높게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hông sao'의 의미에서 '적절하다'가 '딱 맞다'로 높은 만족도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함으로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 의미 문항 5의 분석 결과

문항 5	상황 설명 :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Một chàng trai trẻ muốn hẹn hò với một cô gái anh ta thích. 젊은 남자(chàng trai):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마음에 드는 여자(cô gái): (활짝 웃고: cười tươi) 바쁘지만, 애원(sự cầu xin)을 하신다면야.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3명 (14.4%)	6명 (6.7%)	19명 (21.3%)	27명 (30.3%)	5명 (5.6%)	4명 (4.5%)	15명 (16.9%)	89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2명	7명	0명	82명	9명	0명	0명	100명

문항 5의 상황에서 사용된 ‘괜찮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82%에 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였다. ‘가능하다’ 외에도 ‘상관없다’, ‘충분하다’ 등의 답변이 보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대답이 27명(30.0%)으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적절하다’가 19명(21.1%), ‘기타’가 15명(16.7%), ‘좋다’가 13명(14.4%) 순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가능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괜찮다’의 경우 의미 전달이 원활한 학습자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외는 의미 파악이 힘듦을 알 수 있다.

<표 3-7> 의미 문항 6의 분석 결과

문항 6	상황 설명: 시아버지 될 사람과 대면한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Gặp một người sẽ là bố chồng. 시아버지(bố chồng): 재인이(손자)가 우리 집안 핏줄이지만, 난 손자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아. 자네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도 집에서 쫓겨난 상태고. 걔(손자)가 내 상속자는 아니야. 혹시라도 내 재산 때문에 재인이(손자) 찾는 거면 다른데 알아보는 게 나을 걸세. 며느리(con dâu) : 저 한주화학 주식회사 무남독녀에요. 저희 아버지 재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9명 (10.0%)	4명 (4.4%)	9명 (10.0%)	10명 (11.1%)	22명 (24.4%)	21명 (23.3%)	15명 (16.7%)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2명	11명	1명	1명	78명	1명	6명	100명

문항 6의 상황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대답은 ‘상관없다’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라는 응답자도 11%로 나타났다. 즉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대부분이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이미 재산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상관없다’가 22명(24.4%)으로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으나 ‘무사하다’도 21명(23.3%)에 달하는 등 의미 파악에 혼란을 겪는 학습자도 상당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기타’, ‘좋다’, ‘적절하다’의 응답자도 절반 가까운 숫자이다. 이는 문맥에서 요구하는 ‘괜찮다’의 의미를 일부 학습자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의미 문항 7의 분석 결과

문항 7	상황 설명 : 응급실에 실려 간 지인을 찾아 병원에 간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Đến bệnh viện tìm một người quen được đưa đi cấp cứu. 환자 지인(Người quen của bệnh nhân): 응급실 환자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 : 보호자인가요? 환자 지인 : (멈칫하다가: đột ngột dừng lại) 네. 간호사 : (기록 훑으며: ghi chép hết) CT촬영 결과 **괜찮습니다**. 간단한 찰과상 정도네요.							
의미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9명 (10.0%)	5명 (5.6%)	12명 (13.3%)	10명 (11.1%)	5명 (5.6%)	38명 (42.2%)	11명 (12.2%)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7명	0명	0명	0명	0명	84명	9명	100명

문항 7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무사하다'는 대답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답변에서 '이상 없다'는 대답이 7%, '다친 데 없다'는 대답이 1%였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의 90% 이상이 '괜찮다'를 '무사하다'와 관련된 의미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좋다'는 대답이 7% 있었다. 이는 환자의 상태보다는 CT 촬영의 결과가 좋으며, 나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무사하다'는 대답이 38명(4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적절하다' 12명(13.3%), '기타' 11명(12.2%), '가능하다' 10명(11.1%), '좋다' 9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상황 대답은 '무사하다'에 집중된 것은 '병원', '환자' 등의 관련 어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괜찮다'의 의미 파악이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3.3 괜찮다'의 의미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적절성 인식조사는 7개 문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직관적 대답률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문항 1은 전시회가 '좋다'와 '기타(나쁘지 않다)', 문항 2는 병원을 차릴 정도로 재력이 '좋다'와 '충분하다', 문항 3은 머리숱이 '충분하다', '적절하다', 문항 4는 음식의 맛이 '적절하다', 문항 5는 시간 이 '가능하다', 문항 6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는 문항 2 '좋다'와 '충분하다'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항 1의 전시회가 ‘좋다’, 문항 4의 음식 맛이 ‘적절하다’, 문항 5의 시간이 ‘가능하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제시된 대화문에 대해 문맥을 이해하고 ‘괜찮다’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를 선택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문항 2의 병원을 차릴 정도로 재력이 ‘좋다’와 ‘충분하다’ 대신에 ‘적절하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24.4%, 문항 3은 머리숱이 ‘충분하다’, ‘적절하다’에서는 ‘충분하다’는 13.3%에 불과하지만 ‘적절하다’가 25.6%였고, 문항 4는 음식의 맛이 ‘적절하다’에서는 35.6%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문항 5는 시간이 ‘가능하다’에서도 ‘가능하다’가 30.0%에 이어 ‘적절하다’의 응답률도 21.1%를 차지했다. 이는 ‘괜찮다’의 베트남어 대역어인 ‘không sao’의 의미 중에서 ‘적절하다’가 대표적인 의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응답률이 낮은 항목은 ‘충분하다’였다. 특히, 문항 2와 문항 3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충분하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각각 31%, 51%였으나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는 0%, 13.3%에 불과했다. 이 역시 ‘괜찮다’의 베트남어 대역어인 ‘không sao’의 의미 중에서 ‘충분하다’에 대한 의미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하다’의 의미 표현은 한국어와 달리 만족도가 낮을 때 사용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적절하다’가 만족도가 높을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베트남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어 문맥에 따라 광범위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괜찮다’의 베트남어 대역어인 ‘không sao’와 비슷한 의미일 때는 의미 파악이 보다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4.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 담화 기능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2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로 10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분석에 있어서 조영보(2014)의 담화 기능 항목 조사 ‘괜찮다’의 의미를 모어 화자 직관을 통해 확인하여 제시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담화 기능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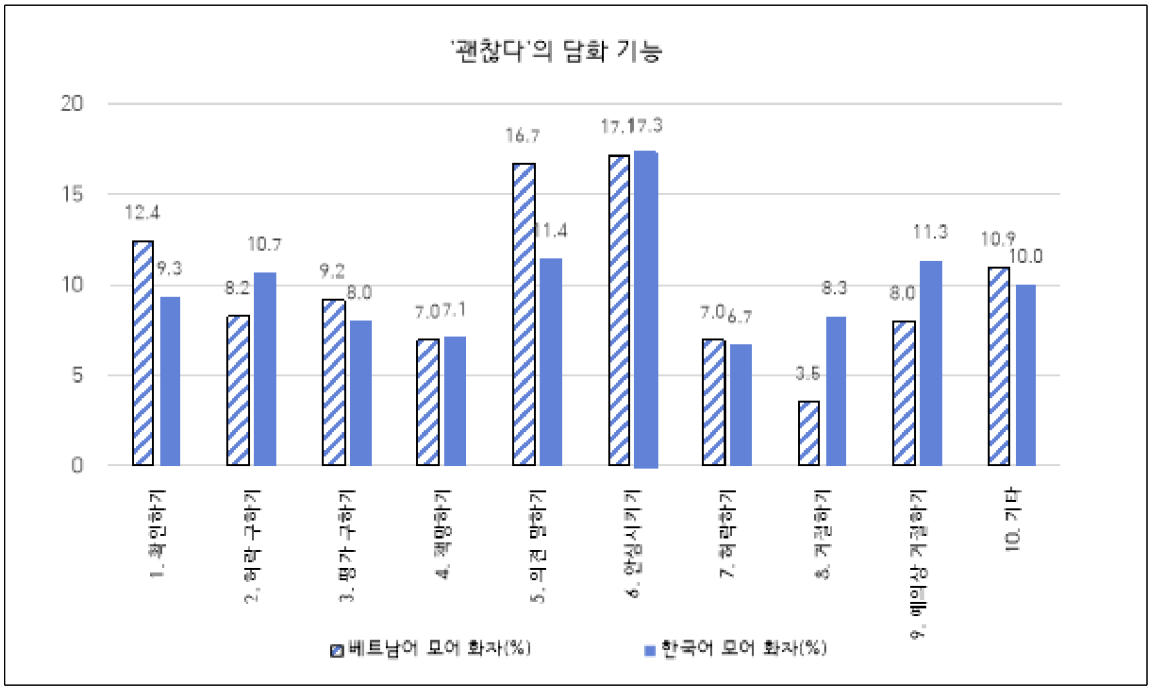
4.1 ‘괜찮다’의 담화 기능의 전체적 경향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관한 12개 문항에 관해 문항별로 대답한 10가지 선택지의 빈도수를 <표 4-1>에 제시하고, 이를 그래프로 한 것은 <그림 5-1>이다.

<표 4-1> ‘괜찮다’의 담화 기능 항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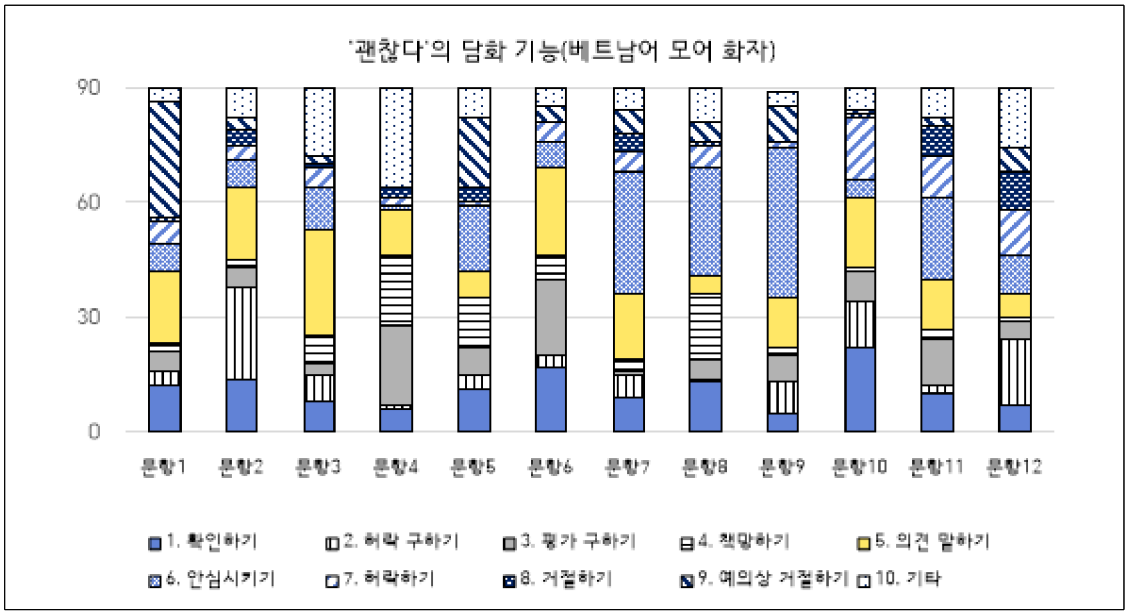
	1.확인하기	2.허락구하기	3.평가구하기	4.책망하기	5.의견말하기	6.안심시키기	7.허락하기	8.거절하기	9.예의상거절하기	10.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n=90)	134 (12.4%)	89 (8.2%)	99 (9.2%)	75 (7%)	180 (16.7%)	185 (17.1%)	75 (7%)	38 (3.5%)	86 (8%)	118 (10.9%)	1079 (100%)
한국어 모어 화자 (n=100)	112 (9.3%)	128 (10.7%)	96 (8%)	85 (7.1%)	137 (11.4%)	207 (17.3%)	80 (6.7%)	99 (8.3%)	136 (11.3%)	120 (10%)	1200 (100%)

<그림 4-1> ‘괜찮다’ 담화 기능 항목에 관한 양국 언어의 모어 화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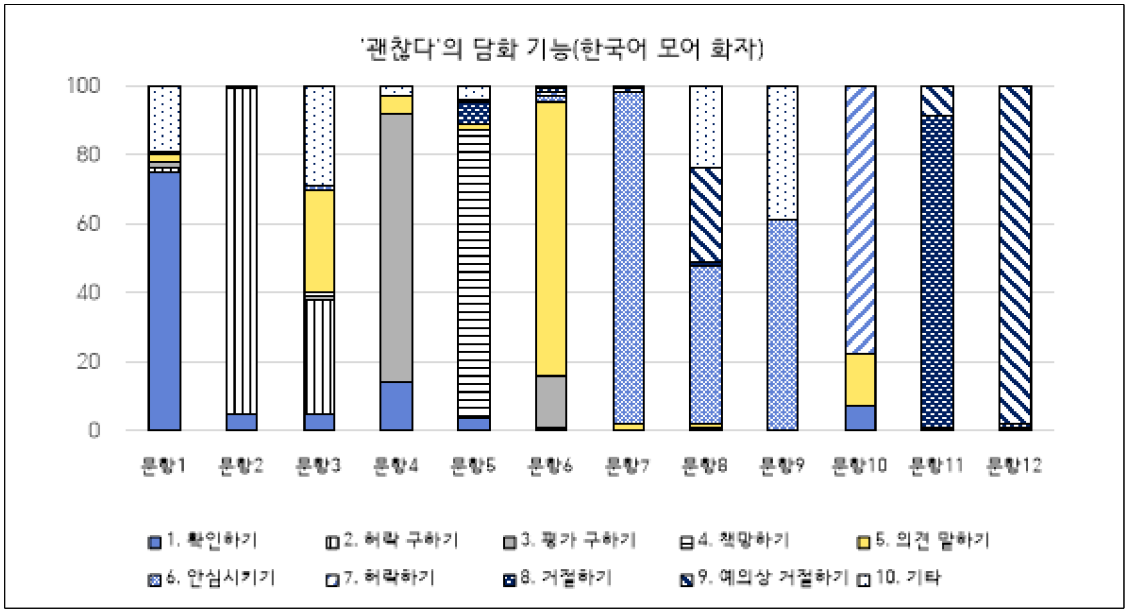


우선 베트남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 항목에 관한 빈도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의견 말하기'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빈도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거절하기'와 '예의상 거절하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확인하기'와 '허락 구하기'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림 4-2> '괜찮다'의 담화 기능 문항별 빈도수(베트남어 모어 화자)



<그림 4-3> '괜찮다'의 담화 기능 문항별 빈도수(한국어 모어 화자)



다음으로 12개의 각 문항별 응답내용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문항별 응답 분포는 <그림 4-2>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그림 4-3>에 각각 제시하였다. 우선 <그림 4-3>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문항별로 특정 항목 하나의 빈도수가 월등히 높으나, 문항 3과 문항 8, 문항 10의 경우는 다소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림 4-2>의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문항별 특정 항목의 집중이 보이지 않고 모두 분산되어 나타났다. 다만, '안심시키기'가 모든 문항에 분산되어 나타나지만, 문항 7 ~ 문항 9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 모어 화자는 담화 기능이 원활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개별 문항 분석

여기에서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조사 문항별로 살펴보았다. 문항별로 설문 내용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 조사 결과인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응답수와 조영보(2014)의 연구 조사 결과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4-2> 담화 기능 문항 1의 분석 결과

문항 1	상황 설명 : 남자친구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tôi lo lắng về việc bạn trai tôi làm việc cùng với một người con gái đã từng quen trước đây. [여자 친구(bạn gái)]: 너... 성아랑 일 하는 건 **괜찮겠어?** [남자 친구(bạn trai)]: 그것도 내 몫이지 말입니다.										
기능	확인하기	허락구하기	평가구하기	책망하기	의견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2명 (13.3%)	4명 (4.4%)	5명 (5.6%)	2명 (2.2%)	19명 (21.2%)	7명 (7.8%)	6명 (6.7%)	1명 (1.1%)	30명 (33.3%)	4명 (4.4%)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75명	1명	2명	0명	2명	1명	0명	0명	0명	19명	100명

담화 기능 조사의 문항 1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확인하기'의 대답이 75%를 차지했고 '기타(걱정하기)'이 1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부분 담화 기능을 '확인하기'와 그와 관련 있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어 모어 화자는 '예의상 거절하기'가 30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9명(21.2%), '확인하기' 12명(13.3%)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확인하기'라고 대답한 학습자는 매우 소수였다. 특히 문항 1의 대화에서 '괜찮

겠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의상 거절하기'와 '의견 말하기' 등의 대답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이 대화의 문맥 파악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담화 기능 문항 2의 분석 결과

문항 2	상황 설명: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Một chàng trai trẻ muốn hẹn hò với một cô gái anh ta thích. 젊은 남자 (chàng trai):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마음에 드는 여자(cô gái): (활짝 웃고:(cười tươi) 바쁘지만, 애원을 하신다면야.										
기능	확인하기	허락구하기	평가구하기	책망하기	의견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4명 (15.6%)	24명 (26.7%)	5명 (5.6%)	2명 (2.2%)	19명 (21.1%)	7명 (7.8%)	4명 (4.4%)	4명 (4.4%)	3명 (3.3%)	8명 (8.9%)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5명	94명	0명	0명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100명

문항 2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으로 '허락 구하기'의 대답이 94%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허락 구하기'가 24명(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9명(21.1%), '확인하기' 14명(15.6%)의 순으로 높았다. 이 대화 상황에서는 베트남 모어 화자의 대답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과 같이 '허락 구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하기'와 '의견 말하기'도 문맥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담화 기능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4> 담화 기능 문항 3의 분석 결과

문항 3	상황 설명 :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찾아 온 가해자에게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có một cuộc va chạm tai nạn nhẹ với bố chồng nhưng ông yêu cầu quá nhiều tiền nên con dâu cùng bố chồng đã đến tìm người gây hại để nói chuyện. 가해자(người gây hại): 아유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bố chồng) 안녕하세요. 며느리(con dâu): 그럼 이 수리비(phí sửa chữa)는 받는 걸로 하구요. 같이 저녁이나 드시죠? [가해자] : 저녁이요? [며느리] : (웃으며 봉투 시아버지께 주며) 바쁘신 분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저녁 쏘세요~ **괜찮으시죠?** 시아버지(bố chồng): (표정:biểu cảm) 아...?

기능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 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8명 (8.9%)	7명 (7.8%)	3명 (3.3%)	7명 (7.8%)	28명 (31.1%)	11명 (12.2%)	5명 (5.6%)	1명 (1.1%)	2명 (2.2%)	18명 (20.0%)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5명	33명	1명	1명	30명	1명	0명	0명	0명	29명	100명

문항 3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의사사통 기능으로 ‘허락 구하기’ 항목이 33%로 가장 많았고 ‘의견 말하기’ 30%, ‘기타(강요하기)’ 29%로 나타나 3등분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의견 말하기’는 28명(3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8명(20.0%), ‘안심시키기’ 14명(12.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인하기’ 8명(8.9%), ‘허락 구하기’ 7명(7.8%) 등은 응답률이 낮았다.

이상에서 이 대화 상황은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5> 담화 기능 문항 4의 분석 결과

문항 4	상황설명 : 헤어진 연인(남자와 여자)이 우연히 만난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một đôi tình nhân đã chia tay (nam và nữ) tình cờ gặp nhau 여자(bạn gái): (vênh mặt lên chỉ vào chàng trai bên cạnh) 어때? 이 남자 **괜찮지?** 남자(bạn nam): (못 마땅하게 보며: không xứng đáng) 고지식(đơn giản) 해 보여.

기능	확인 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 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 시키기	허락 하기	거절 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6명 (6.7%)	1명 (1.1%)	21명 (23.3%)	18명 (20.0%)	12명 (13.3%)	1명 (1.1%)	2명 (2.2%)	3명 (3.3%)	0명	26명 (28.9%)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14명	0명	78명	0명	5명	0명	0명	0명	0명	3명	100명

문항 4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으로 '평가 구하기' 항목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기타'가 26명(2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구하기' 21명(23.3%), '책망하기' 18명(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대화 상황에 대해 '기타' 즉 9가지 항목 외에 다른 기능으로 인식한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책망하기'도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평가 구하기'로 대답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화 기능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인식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 5 에서는 본 조사에서 문제 제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대화 내용에서 '괜찮아 보여요?'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질문에서는 '괜찮아요?'로 질문하는 오류가 있었으므로 삭제하였다.

<표 4-6> 담화 기능 문항 6의 분석 결과

문항 6	상황 설명 : 회의 중 책 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một cuộc họp nói về vấn đề bìa của cuốn sách 회의 진행자(người dẫn chương trình cuộc họp) : 회의 탁자에 여섯 개의 책 표지를 내려놓는다(Đã đặt sáu cái bìa sách xuống bàn họp). [회의 진행자]: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기능	확인 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 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 시키기	허락 하기	거절 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7명 (18.9%)	3명 (3.3%)	20명 (22.2%)	6명 (6.7%)	23명 (25.6%)	7명 (7.8%)	5명 (5.6%)	0명	4명 (4.4%)	5명 (5.6%)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1명	0명	15명	0명	79명	2명	1명	1명	0명	1명	100명

문항 6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의견 말하기'가 79%로 가장 많았고, '평가 구하기'도 15%로 나타났다. 이는 화자의 발화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의견 말하기'가 23명(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구하기' 20명(22.2%), '확인하기' 17명(18.9%)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항목에는 베트남 모어 화자에서도 '의견 말하기'는 25.6%와 22.2%의 '평가 구하기'로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느 정도 소통되는 담화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7> 담화 기능 문항 7의 분석 결과

문항 7	상황 설명 : 전기세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잘 준비를 하는 할머니와 손녀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Bà và cháu gái chuẩn bị tắt lò hơi để tiết kiệm điện 할머니(bà nội): 보일러는 잘 껐지? 손녀(cháu gái): 응. 우리 방만 껐어. 할머니: (옷을 여며주며: bà nội chuẩn bị quần áo cho cháu) 우리 강아지 많이 추워? 손녀: **괜찮아**. 할머니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기능	확인하기	허락구하기	평가구하기	책망하기	의견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9명 (10.0%)	6명 (6.7%)	1명 (1.1%)	3명 (3.3%)	17명 (18.9%)	32명 (35.6%)	5명 (5.6%)	5명 (5.6%)	6명 (6.7%)	6명 (6.7%)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0명	0명	0명	0명	2명	96명	0명	0명	1명	1명	100명

문항 7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로 대답한 경우가 9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할머니에 대한 안심시키는 기능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보는 '의견 말하기'라고 대답한 경우가 2% 있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가 32명(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7명(18.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확인하기' 9명(10.0%), '예의상 거절하기' 6명(6.7%), '허락 구하기' 6명(6.7%), '기타' 6명(6.7%), '허락하기' 5명(5.6%), '거절하기' 5명(5.6%)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이 '안심시키기'와 '의견 말하기'가 높게 나타나 어느 정도 소통되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담화 기능 문항 8의 분석 결과

문항 8	상황 설명 : 여자 친구를 소홀하게 대한 것에 대해 남자가 사과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bạn trai vì đã bỏ bê bạn gái nên nói lời xin lỗi 남자 친구(bạn trai): 요즘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기념일(ngày kỷ niệm)도 못 챙기고, 너 많이 화났을 거야, 내가 막 밉고 그랬지? 여자 친구(bạn gái): 에이, **괜찮아**.

기능	확인하기	허락구하기	평가구하기	책망하기	의견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3명 (14.4%)	1명 (1.1%)	5명 (5.6%)	17명 (18.9%)	5명 (5.6%)	28명 (31.1%)	6명 (6.7%)	1명 (1.1%)	5명 (5.6%)	9명 (10.0%)	90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0명	0명	0명	1명	1명	46명	0명	1명	27명	24명	100명

문항 8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는 27%로 ‘기타’의 대답에서 ‘용서하기’ 24%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고 하더라도 각자 달리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28명(31.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하기’ 13명(14.4%), ‘기타’ 9명(10.0%)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 대답에서 ‘안심시키기’ 31.1%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어느 정도 소통되는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담화 기능 문항 9의 분석 결과

문항 9	상황 설명 :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아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Bố nói chuyện với con trai đang gặp chuyện khó khăn. [아버지]: 아들아! (아들을 안아주며 :bố ôm con và nói) 울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너 옆엔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기대! 아빠가 다 막아 줄게. [아들]: 아빠~~~ 울면서 (아빠 품 안에 안긴다: bố ôm con trai vào lòng).

기능	확인 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 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 시키기	허락 하기	거절 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5명 (5.6)	9명 (9.0)	7명 (7.9)	2명 (2.2)	13명 (14.6)	39명 (43.8)	2명 (2.2)	0	9명 (10.1)	4명 (4.5)	89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0명	0명	0명	0명	0명	61명	0명	0명	0명	39명	100명

문항 9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로 대답한 경우가 61%였고, 기타(격려하기)에서 38%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39명(43.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3명(14.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락 구하기’ 9명(10.0%), ‘예의상 거절하기’ 9명(10.0%), ‘평가 구하기’ 7명(7.8%), ‘확인하기’ 5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대답에서 ‘안심시키기’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에 응답자의 경우는 ‘괜찮다’의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담화 기능 문항 10의 분석 결과

문항 10	상황 설명: 직원이 약속을 잡고 이에 대해 상사와 이야기하는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Nhân viên hẹn gặp và nói chuyện với sếp về công việc. 직원(nhân viên): 그분이 오늘 서울 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약속 잡아놨는데, **괜찮으시죠?** 상사(sếp): 그럼. **괜찮지**										
기능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 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22명 (24.4%)	12명 (13.3%)	8명 (8.9%)	1명 (1.1%)	18명 (20.0%)	5명 (5.6%)	16명 (17.8%)	1명 (1.1%)	1명 (1.1%)	6명 (6.7%)	89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7명	0명	0명	0명	15명	0명	78명	0명	0명	0명	100명

문항 10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허락하기’ 78%로 가장 많았으나 직원의 질문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보는 ‘의견 말하기’의 대답도 1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확인하기’ 22명(24.4%)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8명(2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락하기’ 16명(17.8%), ‘허락 구하기’ 12명(13.3%), ‘평가 구하기’ 8명(8.9%), ‘기타’ 6명(6.7%)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에서는 옳은 대답에 해당하는 ‘허락하기’는 17.8%로 낮게 나타났고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의 대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괜찮다’의 담화 기능 인식이 매우 곤란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담화 기능 문항 11의 분석 결과

문항 11	상황 설명: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상황 (화해 대상: 진호. 박 교수)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Nói chuyện để hòa giải cho đối tượng cần hòa giải (đối tượng cần hòa giải : 진호. 박 교수) 화해를 마련하는 사람(người chuẩn bị sự hòa giải) : 나는 진호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진호(đối tượng hòa giải):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습니다.**

기능	확인하기	허락구하기	평가구하기	책망하기	의견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0명 (11.1%)	2명 (2.2%)	12명 (13.3%)	3명 (3.3%)	13명 (14.4%)	21명 (23.3%)	11명 (12.2%)	8명 (8.9%)	2명 (2.2%)	8명 (8.9%)	89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90명	9명	0명	100명

문항 11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거절하기’로 대답한 경우가 90%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21명(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3명(14.4%), ‘평가 구하기’ 12명(13.3%), ‘허락하기’ 11명(12.2%), ‘확인하기’ 10명(11.1%), ‘거절하기’ 8명(8.9%)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옳은 대답인 ‘거절하기’는 8.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담화 기능이 전혀 소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담화 기능 문항 12의 분석 결과

문항 12	상황 설명: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간호사와 도와주려는 병원관계자가 만난 상황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y tá mang vác hành lí nặng gặp nhân viên bệnh viện có ý muốn giúp đỡ. 간호사(y tá) : 병원 물품인데. 배달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는 길이에요. 병원관계자(nhân viên bệnh viện):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게요. 간호사: **괜찮은데.** 병원관계자: 이리 줘요.(박스를 거뜬하게 드는: nâng cái hộp lên một cách dễ dàng)

기능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	책망하기	의견 말하기	안심시키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	기타	합계
베트남어 모어 화자	7명 (7.8%)	17명 (18.9%)	5명 (5.6%)	1명 (1.1%)	6명 (6.7%)	10명 (11.1%)	12명 (13.3%)	10명 (11.1%)	6명 (6.7%)	16명 (17.8%)	89명 (100%)
한국어 모어 화자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1명	1명	98명	0명	100명

문항 12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예의상 거절하기’ 대답이 9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허락 구하기’ 17명(1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6명(17.8%), ‘허락하기’ 12명(13.3%), ‘안심시키기’ 10명(11.1%), ‘거절하기’ 10명(11.1%), 로 나타났다. ‘확인하기’ 7명(7.8%), ‘의견 말하기’ 6명(6.7%), ‘예의상 거절하기’ 6명(6.7%), ‘평가 구하기’ 5명(5.6%) 등으로 대답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특히, ‘예의상 거절절하기’ 1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문맥 파악에 매우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không sao’가 거절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관한 인식의 조사 결과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가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다. 우선, 문항 1의 걱정이 담긴 ‘확인하기’의 담화 기능에서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점이 반영되어 적절한 응답률을 보이지 못했다. 문항 2의 시간이 괜찮은가의 ‘허락 구하기’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문항 3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 할 것에 대해 묻는 ‘괜찮다’에 관해서는 ‘허락 구하기’, ‘의견 말하기’, ‘기타(강요하기)’로 대답이 3등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도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을 보였으며 문항 4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 구하기’가 담긴 담화 기능에 대해서 적절한 인식은 낮지만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5는 조사에 오류가 있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문항 6의 ‘의견 말하기’, 문항 7의 ‘안심시키기’, 문항 8의 ‘안심시키기’, ‘기타(격려하

기)', 문항 9의 '안심시키기', '기타(용서하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10의 '허락하기'에서는 담화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 곤란했고, 문항 11의 '거절하기'와 문항 12는 더욱 곤란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에 관해서는 '안심시키기'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에 관해서도 다소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에 관한 담화 기능의 인식에 관해서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không sao'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5.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괜찮다’의 학습 방향

5.1 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황

본 논문의 설문 조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괜찮다’의 다양한 의미와 담화 기능을 적절하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으나 고려할 사항이 있다.

(1) 조사 결과 현황

(i) 조사 대상자가 한국어 능력 2급 수준에 해당하므로 설문 조사의 각 문항에 제시된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ii)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관한 설문 내용에서 선택지 문항 구성이 외국인 학습자가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머리숱도 괜찮고’의 설문 내용의 경우,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모두 응답률이 높이 나타난 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머리숱’이 적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때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가 모두 대동소이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주어 ‘머리숱’에 적절한 서술어를 연결 짓는 전략이 활용될 수 있으나 학습자의 경우에 대한 대응도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운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교안 작성 시에 외국인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작성된 교안으로 수업이 도입 - 전개 - 연습 단계를 거쳐서 짝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교안 설계 및 작성의 관계는 드라마의 실제 상황의 역할극을 이용한 짝 활동 교수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5.2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괜찮다’의 학습 방향

이처럼,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와 담화 기능을 다양성을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은 실제 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이고 의미와 담화 기능이 다양함을 인지시켜 학습자들에게는 먼저 학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어 모어 화자에 대해서는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좋다’, ‘무사하다’, ‘상관없다’ 외에 ‘충분하다’의 의미가 있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화 기능에 있어서 우회적인 ‘거절하기’의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1) ‘괜찮다’의 언어적 의미는 조사한 바와 같이 양국 간의 화자는 거의 일치한다.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은 베트남어의 언어적 의미 간섭으로 해석된다.

i) 언어적 의미 인식의 차이를 보인 부분은 ‘괜찮다’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1.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즉, 한국어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나 베트남어 'không sao'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대로 전달하기는 불편한 경우 주로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의미인 '2. 탈이나 문제, 걱정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의 경우는 'không sao'와 매우 흡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의미 문항의 분류 중에서 '좋다', '상관없다', '무사하다'는 비교적 쉽게 응답할 수 있으나, '충분하다', '적절하다'의 경우는 흡족한 수준이라는 의미의 '충분하다'에 대한 응답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여 '괜찮다'의 학습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업에서 교사는 '괜찮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여 '괜찮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1. 이 가방은 어때요? ① 좋아요./ 괜찮아요. ② 별로 좋지 않아요.

2. 머리숱은 어때요? ① 충분히 많아요./ 괜찮아요. ② 별로 없어요.

3. 음식 간이 어때요? ① 적당해요./ 괜찮아요. ② 짜요./ 싱거워요.

4. 오늘 영화 볼 수 있어요? ① 네, 가능해요/ 네, 괜찮아요. ② 아뇨, 오늘 힘들어요.

5. 우산이 없어서 어떡해요? 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② 음, 걱정이에요.

6. 물 마실래요? ① 네. 마실래요. ② 아뇨. 안 마실래요./ 아뇨, 괜찮아요.

7. 제가 들어 줄게요. ① 네. 고마워요. ② 아뇨. 제가 들게요./ 아뇨, 괜찮아요.

위 예문은 한국어의 '괜찮다'가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 '괜찮다'는 '좋다'와 '좋지 않다'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강하며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괜찮다'의 의미와 거절의 기능에 관해서도 함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ii)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괜찮다'의 학습에 있어서 'không sao'의 의미와 기능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괜찮다'의 의미에 관한 언어적 의미 인식에 대한 차이는 존재했다.

이에 본 논문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문항별 베트남 모어 화자와 1 : 1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괜찮다'의 의미 항목 조사 문항별로 <표 3-2> ~ <표 3-8>에 제시한 내용에서 문항 1은 한국어와 유사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언어적

의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2의 상황을 문맥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không sao'의 의미에 '충분하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 '적절하다'는 '딱 맞다'로 표현할 때 만족도가 꽤 높을 때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충분하다' 의미는 ('적절하다')보다 만족도가 낮을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의미 해석에서 다른 결과로써 언어적 의미 차이점에 의해 간섭받게 된 결과로 나타났다.

문항 3에서 'không sao'의 의미에 '충분하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어에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적절하다'가 높은 만족을 표할 때 사용되므로 높게 나타났으나 '충분하다'가 낮은 만족도를 일 때 사용함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충분하다'와 '적절하다가'가 분명히 문화적 차이점에 의해 간섭받게 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4는 언어적 의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không sao'의 의미에서 '적절하다'가 '딱 맞다'로 높은 만족도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함으로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5에서 베트남어의 의미로 사용된 '괜찮다'의 경우 '적절하다'가 '충분하다'보다 만족도가 높을 때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높게 나타나 의미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직관적 판단으로 답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의미 '충분하다'가 '적절하다'보다 만족도가 높을 때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언어적 문화 차이가 있음이라고 베트남 모어 화자가 대답하였다.

문항 6은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언어적 의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7은 베트남 모어 화자의 상황 대답은 '무사하다'에 집중된 것은 '병원', '환자' 등의 관련 어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괜찮다'의 언어적 의미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2) '괜찮다'의 담화 기능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아래와 같은 i, ii, iii) 이유이다.

i) 피험자의 한국어 능력이 모어 화자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설문 조사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항목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낮게 나타난 원인 즉 간과한 부분으로는 연구 대상자를 2급 자격에 치중하였으므로 한국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ii) 설문지의 문항에 따른 항목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 의미 문항에서 답변 항목 7개, 담화 기능 항목에서는 10개로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iii)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서 베트남어의 언어문화가 한국어와의 차이점

담화 기능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2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1에서 ‘예의상 거절하기’와 ‘의견 말하기’ 등의 대답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이 대화의 문맥 파악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담화 기능을 인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담화 기능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언어 문화적으로 상황에 맞는 심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나타남에 담화 기능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베트남 모어 화자는 대답하였다.

문항 2는 베트남 모어 화자의 대답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과 같이 ‘허락 구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하기’와 ‘의견 말하기’도 문맥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 담화 기능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답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해하고 베트남의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같으며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답변은 양국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3은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히 인식하고 의사소통되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문항 4는 ‘기타’ 즉 9가지 항목 외에 다른 기능으로 인식한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책망하기’도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평가 구하기’로 대답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화 기능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인식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문화적으로 일부 상통하는 ‘평가 구하기’와 ‘의견 말하기’가 있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문항 5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겸손, 미안해하는 목소리, 표정 등의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

문항 6은 베트남 모어 화자에서도 ‘의견 말하기’는 25.6%와 22.2%의 ‘평가 구하기’로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느 정도 소통되는 담화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하 직위에 따라 팀장은 ‘평가 구하기’ 팀원은 ‘의견 말하기’로 선택하게 함에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7은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가 32명(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말하기’ 17명(18.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옳은 응답률이 높아서 양국 간의 언어적 문화 간섭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8은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28명(31.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하기’ 13명(14.4%), ‘기타’ 9명(1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 모어 화자도 언어 문화적으로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대답하였다.

문항 9는 베트남 모어 화자는 ‘안심시키기’ 39명(43.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

견 말하기’ 13명(14.4%)으로 나타났다.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대답에서 ‘안심시키기’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사소통이 됨에 따라 상호 담화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10은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에서는 옳은 대답에 해당하는 ‘허락하기’는 17.8%로 낮게 나타났고 ‘확인하기’,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의 대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괜찮다’의 담화 기능 인식이 분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상사는 ‘허락하기’가 될 수 있고, 직원이면서 팀원은 ‘허락 구하기’ 또는 ‘의견 말하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 모어 화자가 이렇게 분간 지어 답변하는 것은 확실한 의사소통이 된 상황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문항 11은 한국어 모어 화자는 ‘거절하기’로 대답한 경우가 9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옳은 대답인 ‘거절하기’는 8.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담화 기능이 전혀 소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미하는 담화 기능은 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설문 대상자가 한국어 2급으로 실력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베트남 모어 화자는 대답하였다.

문항 12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예의상 거절하기’ 대답이 9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허락 구하기’ 17명(1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의상 거절절하기’ 는 1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대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문맥 파악에 매우 혼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không sao’가 거절의 기능 수행은 의미하는 담화 기능에서 양국 간의 언어 사회적인 상통하는 상황으로써 소통 가능한 내용이다. 하지만 설문 대상자가 한국어 2급으로 실력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베트남 모어 화자는 답하였다.

5.3 한국어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교안

<표 5-1> '괜찮다' 수업의 교안

학습 목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을 이해 가능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한국어 교사 진행
도입(5분)	지난 차시 내용 복습 (PPT 자료 제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제시(20분)	1) 상황 제시를 통한 '괜찮다'의 의미 노출 2)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상황 제시
연습(15분)	3) 의미 문항 연습 - 항목별 4) 담화 문항 용례로 연습 - 항목별
활동(20분)	의미 문항 용례와 담화 문항 용례 과제 수행
마무리(10분)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 숙제 부과 다음 시간 안내 (평가)

한국어 '괜찮다' 수업의 교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수업 자료 제시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지문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교재만을 활용하는 수업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 괜찮다'의 다양한 의미와 담화 기능을 교수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문만을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는 방식도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는 '괜찮다' 학습을 위한 교안을 개발하여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자.

<표 5-2> ‘괜찮다’ 의미 7개 문항 수업의 교안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지도 시 유의점
도입 (5분)	**한국어 교사**	‘괜찮다’의 의미 표현에 대한 7개 문항별 설명 후 이와 관련 기타를 제외, 6개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이해가 어려운지 질문한다.	‘기타’ 항목 제외는 외국인으로 가만 하였음.
	한국어 모어 화자	문항 2) 지문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낼모레 병원 차린다는 **괜찮은** 남자가 왜 여태 여자가 없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1. 좋다(51%) 2. 충분하다(31%)	한국어 내용에 충분하다:설명 만족스럽고 넉넉함을 표현
	베트남어 모어 화자	1. 무사하다(26%) 2. 적절하다(24%)	‘충분하다’ (0%) 와 ‘적절하다’(24%) 비교
	한국어 모어 화자	문항 6) 지문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저희 아버지 재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1. 상관없다(78%) 2. 충분하다(11%)	재력이 충분하여 상속아니라도 ‘상관없다’,‘충분하다’ 대신에 ‘무사하다’를 선택한 것은 의미 파악에 혼란
	베트남어 모어 화자	1. 상관없다(24%) 2. 무사하다(23%)	
제시 (20분)	**한국어 모어 화자 의미**	문항 2) ‘좋다’ ‘충분하다’를 적용함 ‘충분하다’가 만족도가 높고 넉넉함을 표현 문항 6) 충분하니까 ‘상관없다’는 의미 적용함	‘적절하다’ ‘충분하다’의 의미 차이
	베트남 모어 화자 의미	문항 2) ‘좋다’, ‘적절하다’를 적용함 ‘적절하다’가 ‘충분하다’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표현이다. 문항 6)에서 베트남어 재력이 좋아서 ‘충분하다’ 대신에 ‘적절하다’ 선택은 한국어와 의미 차이 때문이다.	
전개 (연습) 15분	**의미 문항** 1) ~ 문항 7)까지 **이와 관련 선택 항목 7개 제시**	문항 1) ~ 문항 7)까지 지문 배부	교사가 문항을 읽고 적절한 의미를 제시

단계	**의미 문항** 1) ~ 문항 7)까지 **상황 설정에 맞는 항목 7개 중 선택하기**	**- 의미 문항** 1) ~ 문항 7)까지 **설정된 상황에 적절한 항목을 선택한다.** [PPT]	**의미 문항** 1) ~ 문항 7)까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항목을 제시
활동 **(20분)** **짝 활동**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문항** 1) 관람객: (다가와서) 수고했어요. 박경순씨.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전시자: 고마워.	1. 기타(나쁘지 않다) 42% 2. 좋다(37%)
		문항 2) 다현: 낼 모레 병원 차린다는 **괜찮은** 남자가 왜 여태 여자가 없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1. 좋다(51%) 2. 충분하다 (31%)
		문항 3) 다현: '머리숱도 **괜찮고** 배도 안 나왔으니까. 좋다, 인심 썼다. 80점!'	1. 충분하다 (51%) 2. 적절하다 (27%)
		문항 4) 며느리: 어머님,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1. 적절하다 (77%) 2. 기타(10%)
		문항 5) 젊은 남자: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1. 가능하다 (82%) 2. 상관없다 (9%)
		문항 6) 며느리: 저희 아버지 재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1. 상관없다 (78%) 2. 충분하다 (11%)
		문항 7) 간호사: (기록 훑으며) CT촬영 결과 **괜찮습니다.** 간단한 찰과상 정도네요.	1. 무사하다 (84%) 2. 기타(9%)

마무리 (10분)	**학습 내용 확인 (지문 배부)**	의미 문항 연습 의미 문항 용례로 연습	'괜찮다'의 의미 이해가 가능
	과제 제시	의미 문항 용례 과제 수행 '괜찮다'의 의미 관련하여 과제 부과 다음 시간 안내 (평가)	

<표 5-2> ‘괜찮다’의 의미 관련 수업 교안을 살펴보면, 도입(5분)-제시(20분)-연습(15분)-활동(20분)-마무리(10분)로 세분된 순서로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역할 및 짝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는 70분 수업이 진행된다. 이 수업의 교안은 베트남인(한국어 2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도입 부분에서 마무리 부분까지의 단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활동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시 단계에서 한국어 교사가 드라마 또는 시트콤 대본을 활용한 ‘괜찮다’의 의미 기능에 관련된 문항 및 항목 선택에 대하여 설명을 마친 후, 함께 연습하거나 해당 활동 지문을 풀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짝 활동을 통해 상황에 맞도록 간단한 회화 연습이 시행될 수도 한다. 또한, 수업 전반에 걸쳐 베트남어 모어 화자는 해당 교안을 바탕으로 일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한국어의 ‘괜찮다’의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이제 ‘괜찮다’의 담화 기능 교안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표 5-3> ‘괜찮다’ 담화 기능 12개 문항 수업의 교안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지도 시 유의점
도입 (5분)	**한국어 교사**	‘괜찮다’의 담화 기능 표현에 대한 10개 문항별 설명 후 이와 관련 9개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이해가 어려운지 질문한다.	‘기타’ 항목 제외는 외국인으로 가만 하였음.
	한국어 모어 화자	문항 6) 지문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회의 진행자: 회의 탁자에 여섯 개의 책 표지를 내려놓는다. 회의 진행자: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1. 의견 말하기(79%) 2. 평가 구하기(15%)	한국어 내용 설명: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적용함.
	베트남어 모어 화자	1. 의견 말하기(25.6%) 2. 평가 구하기(22.2%)	담화 기능이 이루어짐
	한국어 모어 화자	문항 11) 지문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화해를 마련하는 사람: 나는 진호씨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진호: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습니다. 1. 거절하기(90%) 2. 예의상 거절하기(9%)	한국어 내용 설명: ‘괜찮다’는 거절의 의미와 담화 기능이 있다. 담화 기능이 전혀 소통되지 않음.
	베트남어 모어 화자	1. 거절하기(8.9%) 2. 예의상 거절하기(2.2%)	
제시 (20분)	**한국어 모어 화자 의미**	문항 6) ‘의견말하기’ ‘평가구하기’를 적용함 문항 11)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로 적용함	문항 11) ‘괜찮다’는 거절의 의미와 담화 기능이 있음.
	베트남 모어 화자 의미	문항 6) ‘의견말하기’ ‘평가구하기’를 적용으로 상호 담화 기능이 일치함. 문항 11)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가 담화 기능이 전혀 소통되지 않음.	
전개 (연습) 15분	**의미 문항** 1) ~ 문항 12)까지 **이와 관련 선택 항목 10개 제시**	문항 1) ~ 문항 12)까지 지문 배부	교사가 문항을 읽고 적절한 담화 기능의 항목을 제시

단계	**문항** 1) ~ 문항 12)까지 **상황 설정에 맞는 담화 기능 항목 10개 중 선택하기**	**-담화 기능 문항** 1) ~ 12)까지 **문항의 상황 설정에 적절한 항목을 선택한다.** [PPT]	**담화 기능 문항** 1) ~ 12)까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택항목을 제시한다.
활동 **(20분)** **짝** **활동**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예의상 거절하기 ⑩기타	**문항** 1) 여자 : 너... 성아랑 일 하는 건 **괜찮겠어**? 남자 : 그것도 내 몫이지 말입니다.	1. 확인하기(75%) 2.기타(걱정하기)(19%)
		문항 2) 젊은 남자 :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1. 허락 구하기(94%) 2. 확인하기(5%)
		문항 3) 며느리 : (웃으며 봉투 시아버지께 주며) 바쁘신 분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저녁 쏘세요~ **괜찮으시죠**?	1. 허락 구하기(33%) 2. 의견 말하기(30%) 3 . 기 타 (강 요 하 기)(29%)
		문항 4) 여자 : 어때? 이 남자 **괜찮지**? 남자 : 고지식(đơn giản)해 보여.	1. 평가 구하기(78%) 2. 확인하기(14%)
		문항 5) 여자 : (상한 음식을 제공한 후) 괜찮아요? 남자 : **괜찮아 보여요**? [문항 5]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요**?"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책망하기(83%) 2. 거절하기(6%)
		문항 6) [책 표지에 관한 이야기하는 상황] 회의 진행자 :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1. 의견 말하기(79%) 2. 평가 구하기(15%)
		문항 7) 할머니: 우리 강아지 많이 추워? 손녀: **괜찮아**. 할머니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1. 안심시키기(96%) 2. 의견 말하기(2%)
		문항 8) 남자 : 요즘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기념일도 못 챙기고, 너 많이 화났을 거야, 내가 막 밉고 그랬지? 여자 : 에이, **괜찮아**.	1. 안심시키기(47%) 2. 예의상 거절하기(27%) 3. 기타(용서하기)(24%)

		문항 9) 아버지: 울지 마. 기죽지 마. **<u>괜찮아</u>**! 너 옆엔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기대! 아빠가 다 막아 줄게. 아들: 아빠~~~ 울면서	1. 안심시키기(61%) 2. 기타(격려하기)(38%)
		문항 10) 직원 : 그분이 오늘 서울 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약속 잡아놨는데, **<u>괜찮으시죠</u>**? 상사 : 그럼. 괜찮지	1. 허락하기(78%) 2. 의견 말하기(15%)
		문항 11) A : 나는 진호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진호 : 고마운 말씀이지만 **<u>괜찮습니다.</u>**	1. 거절하기(90%) 2. 예의상 거절하기(9%)
		문항 12) 병원관계자 :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게요. 간호사 : **<u>괜찮은데.</u>** 병원관계자 : 이리 줘요.	1. 예의상 거절하기(98%) 2. 거절하기(1%) 3. 허락하기(1%)
마무리 (10분)	**학습 내용 확인 (지문 배부)**	담화기능 문항 연습 담화기능 문항 용례로 연습	'괜찮다'의 담화 기능 이해가 가능
	과제 제시	담화기능 문항 용례와 과제 수행 '괜찮다'의 담화 기능 과제 부과 다음 시간 안내 (평가)	

<표 5-3> ‘괜찮다’의 담화 기능 수업 교안에 따라 7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한국어 교사가 드라마 또는 시트콤 대본을 활용한 ‘괜찮다’의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문항 및 항목 선택에 대하여 설명을 마친 후, 함께 연습하거나 해당 활동지문의 용례를 파악한다. 이에 따른 짝 활동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간단한 회화 연습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수업 과정을 통해 베트남어 모어 화자에게 효율적으로 다양한 ‘괜찮다’의 담화 기능은 정서적 의미가 교수 될 수 있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 5-2>‘괜찮다’의 의미 및 <표 5-3> 담화 기능에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교안을 제시하였다.

‘괜찮다’ 한국어 수업의 진행 방법은 <표 5-1>과 같이, 도입(5분)-제시(20분)-연습(15분)-활동(20분)-마무리(10분)로 활동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인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수업 후 활동에서는 수업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고 해당 지식의 습득 정도를 심화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음 차시의 학습 내용에 대해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충실하게 거치면 수업의 질 향상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습자 개인별로 한국어의 습득 및 주어진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괜찮다’와 관련하여 좀 더 쉽고 편안한 의미를 세밀하고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빠른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자가 모르거나 모호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포착하고 질문 등을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어가 서투른 학습자의 부족한 면을 강화하고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다. 또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을 학습한 후,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는 짝 활동을 통해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는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을 상정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항목을 사실적으로 구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부한 지문을 통해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마무리 단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아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업이 마무리된 후 학습자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다음 차시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상의 사항들을 감안하면 한국어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 수업을 다음의 두 가지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의 지문이 드라마 또는 시트콤에서 활용한 대본으로 실제 상황의 교안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모어 학습자들에게 직접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 사례를 보여 주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 및 담화 사례들을 교안에 담을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해내는 한국어 ‘괜찮

다’의 의미 및 담화 구조를 살피고, 사용 양상에 대해 맞춤식 피드백이 가능하다.

둘째, 현재의 한국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용례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한 학습을 수월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6. 결론 - 의미 및 담화 기능 인식 분석

이상에서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에 대해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적절성 인식 조사는 7개 문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그 조사 결과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대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문항 1은 전시회가 ‘좋다’와 ‘기타(나쁘지 않다)’, 문항 2는 병원을 차릴 정도로 재력이 ‘좋다’와 ‘충분하다’, 문항 3은 머리숱이 ‘충분하다’, ‘적절하다’, 문항 4는 음식의 맛이 ‘적절하다’, 문항 5는 시간이 ‘가능하다’, 문항 6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모어 화자는 문항 2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항 1의 전시회가 ‘좋다’, 문항 4의 음식 맛이 ‘적절하다’, 문항 5의 시간이 ‘가능하다’, 문항 7은 환자의 상태가 ‘무사하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제시된 대화문에 대해 문맥을 이해하고 ‘괜찮다’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를 선택하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충분하다’의 응답률은 낮았다. ‘적절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에서 높은 경우는 물론 그 이외의 문항에서도 ‘적절하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응답률이 낮은 항목은 ‘충분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률이 높은 항목에서도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으로 베트남 모어 화자는 ‘괜찮다’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한국어 문맥에 따라 광범위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괜찮다’의 베트남어 대역어인 ‘không sao’와 비슷한 의미일 때는 의미 파악이 보다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괜찮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에서는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다. 우선, 문항 1의 걱정이 담긴 ‘확인하기’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점이 반영되어 적절한 응답률을 보이지 못했다. 문항 2의 시간이 괜찮은가의 ‘허락 구하기’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문항 3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할 것에 대해 묻는 ‘괜찮다’에 관해서는 ‘허락 구하기’, ‘의견 말하기’, ‘기타(강요하기)’로 대답이 3등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도 어느 정도 적절한 인식을 보였으며 문항 4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 구하기’가 담긴 담화 기능에 대해서 적절한 인식은 낮지만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5는 조사에 오류가 있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문항 6의 ‘의견 말하기’, 문항 7의 ‘안심시키기’, 문항 8의 ‘안심시키기’, ‘기타(격려하기)’, 문항 9의 ‘안심시키기’, ‘기타(용서하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10의 ‘허락

하기’에서는 담화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 곤란했고, 문항 11의 ‘거절하기’와 문항 12는 더한층 곤란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베트남 모어 화자의 담화 기능에 관해서는 ‘안심시키기’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허락 구하기’, ‘평가 구하기’에 관해서도 다소 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거절하기’, ‘예의상 거절하기’에 관한 담화 기능의 인식에 관해서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không sao’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괜찮다’의 의미 및 담화 기능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와 담화 기능을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어 모어 화자에 대해서는 ‘괜찮다’의 의미 중에서 ‘좋다’, ‘무사하다’, ‘상관없다’ 외에 ‘충분하다’의 의미가 있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담화 기능에 있어서는 우회적인 ‘거절하기’의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배려한 다양한 급수별 대화 양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따른 제약연구도 미약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급수별 인원이 확보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자은 (1988). “대화의 인접 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 논문집」, 19-41면.

국립 국어연구원(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재단.

국제어문학회, KCI등재, 229-251면, 이중언어학 (2005) 제28호

김정남 (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남탁(1998). ‘비양립 관계와 정도어의 분포 범주’, 「추상과 의미의 실제」(이승명 엮음(1998), 박이정, 23-44면.

김형민 (2003).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 수행 및 응대 상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 의미학회, 255-290면.

도재학 (2011), 「현대 국어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준하 · 김병선(1991: 46), 「한국어 형용사 사전」, 계명문화사.

박유자 · 박복덕(2006), 「ケンチャンタ」と「大丈夫」の多義性についての考察, 한국일어일문학회, Vol.57 No.1, 157-178(22쪽)

박은하 (2016), 한국어 교재와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괜찮다’의 사용 양상과 의미 기능 39-50면.

서상규 외(1999), ‘한국어 교육 가초 어휘 의미 빈도 사잔의 개발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재단.

신기철 · 신용철(1986:34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181)

서희정 (200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희정 (2002). “형용사 ‘괜찮다’의 담화 기능-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제12치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480-489면.

서희정 (2005), 「형용사 괜찮다 의 담화 기능 -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28,125-160면.

이수연 (2008), 「한국어 거절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선 (2014), 한국어의 우희적 거절 표현 연구 ‘괜찮다’와 ‘됐다’의 문화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왕원원 (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괜찮다’의 담화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효설, 최윤곤 (2017), 한국어 ‘괜찮다’와 중국어 ‘몰관계(沒關系)’의 담화 기능, 국제어문학회.

이유미 (2015), 응답발화(應答發話) ‘괜찮다’의 맥락(脈絡)에 따른 인식(認識) 연구(硏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KCI등재, 125-142면.

이유진 (1999) “영·한 화행 대조 분석 -Disagreement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해영 (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46-47면.
임규홍(1998), 「국어 ‘말이야’의 의미와 담화적 기능」.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 언어학회.
임지룡(1986), 의미지도의 한원리, 모국어 교육 4, 95~124, 모국어 교육학회.
임지룡(1992:158-160)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장용대 (1996). “영·한 화행 대조 분석-‘거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보 (2014), 한국어 ‘괜찮다’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애려 (2007),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진흥재단 한국어 능력 평가위원회(1997).「한국어 형용사 구문 용례 자료집」,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기본 모형개발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별책 부록(2).
한지민 (2012), 「한국어 ‘괜찮다’의 교육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상희 (2007), 「‘괜찮다’의 화용적 기능과 특징」, 우리말학회, 우리말연구. 제20집
홍성우 (2000), 「낱말의 다의성의 다의성」, 언어와 언어학, Vol.125 No. 65-90면.

<부록 1>

설문 조사지(한국어판)

다음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괜찮아요' 라는 표현에 대한 느끼는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소중한 자료료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알고 지내는 동급생 간의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기본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하거나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 성별 : 남 ( ) 여 ( )
  •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이상)

'괜찮다'의 의미 관련 설문 조사지

* 다음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황 설명 : 전시회에서 인사하는 상황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관계)

[관람객] : (다가와서) 수고했어요. 경순 씨.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박경순 [전시자] : 고마워 ~

문항 1.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네요"**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2. 상황 설명 : 선을 보고 실망한 다현이 친구에게 불만을 말하는 상황

다현 [선을 본 여자] : 응. (치과의사 흉내 내며) “엄마, 어디가 맛있어?”
이러구 물어 보더라. 땀 뻘뻘 흘리면서.
낼 모레 병원 차린다는 **괜찮은** 남자가 왜 여태 여자가 없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문항 2.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은”**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3. 상황 설명 : 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 남자를 처음 보고, 점수를 매기는 상황

[선을 본 여자] : ‘머리숱도 **괜찮고** 배도 안 나왔으니까.
좋다, 인심 썼다. 80점!’

문항 3.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고”**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4. 상황 설명 :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의 맛이 이상해서 며느리가 다시 간을 맞춘 상황

[며느리] : 어머님,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문항 4.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은**"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5. 상황 설명 :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

[젊은 남자] :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마음에 드는 여자] : (활짝 웃고) 바쁘지만, 애원을 하신다면야.

문항 5.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으시면**"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6. 상황 설명 : 시아버지 될 사람과 대면한 상황

[시아버지] : 재인이(손자)가 우리 집안 핏줄이지만, 난 손자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아. 자네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도 집에서 쫓겨난 상태고. 걔(손자)가 내 상속자는 아니야.
혹시라도 내 재산 때문에 재인이(손자) 찾는 거면 다른데 알아보는 게 나을 걸세.

[며느리] : 저 한주화학 주식회사 무남독녀에요. 저희 아버지 재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문항 6.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요."**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7. 상황 설명 : 응급실에 실려 간 지인을 찾아 병원에 간 상황

[환자 지인] : 응급실 환자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 : 보호자인가요?
[환자 지인] : (멈칫하다가) 네.
간호사 : (기록 훑으며) CT 촬영 결과 **괜찮습니다**. 간단한 찰과상 정도네요.

문항 7.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습니다"**의 의미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좋다 ② 충분하다 ③ 적절하다 ④ 가능하다 ⑤ 상관없다
⑥ 무사하다 ⑦ 기타( )

‘괜찮다’의 담화 기능 관련 설문 조사지

* 다음 대화를 잘 읽고 밑줄 친 **‘괜찮다’**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1. 상황 설명 : 남자친구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상황

[여자 친구] : 너... 성아랑 일하는 건 **괜찮겠어?**

[남자 친구] : 그것도 내 몫이지 말입니다.

문항 1.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겠어?”**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

2. 상황 설명 :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

[젊은 남자] :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마음에 드는 여자] : (활짝 웃고) 바쁘지만, 애원을 하신다면야.

문항 2.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으시면”**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3. 상황 설명 :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찾아 온 가해자에게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상황

[가해자] : 아유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 안녕하세요.

[며느리] : 그럼 이 수리비는 받는 걸로 하구요. 같이 저녁이나 드시죠?

[가해자] : 저녁이요?

[며느리] : (웃으며 봉투 시아버지께 주며) 바쁘신 분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저녁 쏘세요~ **괜찮으시죠?**

[시아버지] : (표정) 아...?

문항 3.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으시죠?"**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4. 상황 설명 : 헤어진 연인(남자와 여자)이 우연히 만난 상황

연경(여자) : (옆에 있는 남자, 턱짓을 가리키며) 어때? 이 남자 **괜찮지?**

석봉(남자) : (못 마땅하게 보며) 고지식해 보여.

문항 4.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지?"**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5. 상황 설명 : 모르고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

개인 [상한 음식을 제공한 여자] : **괜찮아요?**

진호 [상한 음식을 먹은 남자] : **괜찮아 보여요?**

문항 5.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요?"**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6. 상황 설명 : 회의 중 책 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

회의 진행자 (회의 탁자에 여섯 개의 책 표지를 내려놓는다)

[회의 진행자]: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문항 6.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은"**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7. 상황 설명 : 전기세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잘 준비를 하는 할머니와 손녀

할머니 : 보일러는 잘 껐지?

손　녀 : 응. 우리 방만 껐어.

할머니 : (승아 옷 여며주며) 우리 강아지 많이 추워?

손　녀 : **괜찮아**. 할머니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문항 7.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8. 상황 설명 : 여자 친구를 소홀하게 대한 것에 대해 남자가 사과하는 상황

[남자 친구] : 요즘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기념일도 못 챙기고, 너 많이 화났을 거야, 내가 막 밉고 그랬지?

[여자 친구] : 에이, **괜찮아**.

문항 8.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9. 상황 설명 :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아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아버지]: 아들아! (아들을 안아주며) 울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너 옆엔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기대! 아빠가 다 막아 줄게.

[아 들]: 아빠~~~ 울면서 (아빠 품 안에 안긴다)

문항 9.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아!"**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10. 상황 설명 : 직원이 약속을 잡고 이에 대해 상사와 이야기하는 상황

[직원] : 그분이 오늘 서울 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약속 잡아놨는데, **괜찮으시죠?**

[상사] : 그럼. **괜찮지**

문항 10.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지'**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11. 상황 설명 :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상황
(화해 대상 : 진호, 박 교수)

[화해를 마련하는 사람] : 나는 진호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진호 :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습니다.**

문항 11.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습니다**"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12. 상황 설명 :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간호사와 도와주려는 병원관계자가 만난 상황

간호사 : 병원 물품인데. 배달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는 길이에요.

[병원관계자] :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게요.

간호사 : **괜찮은데.**

[병원관계자] : 이리 줘요. (박스를 거뜬하게 드는)

문항 12. 위 지문의 밑줄 친 "**괜찮은데**"의 담화 기능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확인하기 ② 허락 구하기 ③ 평가 구하기 ④ 책망하기 ⑤ 의견 말하기
⑥ 안심시키기 ⑦ 허락하기 ⑧ 거절하기 ⑨ 예의상 거절하기 ⑩ 기타 ( )

<부록 2>

설문조사지(베트남어 모어 화자용)

다음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괜찮아요' 라는 표현에 대한 느끼는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소중한 자료료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알고 지내는 동급생 간의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hiếu khảo sát sự liên quan ý nghĩa của từ '괜찮다'

● Sau đây là khảo sát cơ bản để phân tích thống kê.
Vui lòng đánh dấu ○ vào phần thích hợp

- giới tính : nam ( ) nữ ( )
- lứa tuổi : (10 tuổi / 20 tuổi /30 tuổi /40 tuổi trở lên)
- giai đoạn : sơ cấp (1~2cấp) / trung cấp (3~4 cấp)/ cao cấp (5~6 cấp)

● Sau đây là các kĩ năng hội thoại khác nhau của từ "**괜찮다**"
Hãy đọc kĩ nội dung cuộc hội thoại, giải thích và trả lời câu hỏi.

● Hãy đọc kỹ nội dung của bộ phận gạch chân dưới đây và chọn một câu trả lời phụ hợp với nghĩa của từ "**괜찮다**"

1.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Tình huống chào hỏi trong buổi triển lãm (Hai người có mối quan hệ xấu)

[khách tham quan] : (tới gần) 수고했어요. 경순 씨.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김경순 [tác giả triển lãm] : 고마워

Câu hỏi 1.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 **괜찮네요.**"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2.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다연 đã nói với bạn của mình về sự bất mãn và thất vọng khi đi coi mắt.

다현 [người con gái đã đi xem mắt] : 응. (bắt chước) “엄마, 어디가 맛있어?”
이러구 물어 보더라. 땀 뻘뻘 흘리면서.
낼 모레 병원 차린다는 **괜찮은** 남자가 왜 여태 여자가 없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Câu hỏi 2.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괜찮은**"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3.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tình huống đi gặp bạn nam lần đầu gặp và chấm điểm anh ta

[người con gái xem mắt] : ‘머리숱도**(số sợi tóc)** **괜찮고** 배도 안 나왔으니까.
좋다, 인심 썼다. 80점!’

Câu hỏi 3.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괜찮고**"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4.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tình huống mẹ chồng làm đồ ăn có vị lạ nên con dâu đã nêm nêm lại cho vừa.

[con dâu] : 어머님,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Câu hỏi 4.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괜찮은**"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

5.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chàng trai trẻ muốn hẹn hò với một cô gái anh ta thích.

[chàng trai] :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cô gái] : (cười tươi) 바쁘지만, 애원을(sự cầu xin) 하신다면야.

Câu hỏi 5.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괜찮으시면**"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

6.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Gặp một người sẽ là bố chồng.

[bố chồng] : Jane là cháu trai của gia đình tôi nhưng tôi không xem nó là cháu nội.
Bây giờ nó cũng đang trong tình trạng bị đuổi khỏi nhà chắc cô cũng biết. Nó không phải là người thừa kế của tôi. Nếu đang vì tài sản của tôi mà đến tìm jane thì tốt hơn nên tìm nơi khác

[con dâu] : 저 한주화학 주식회사 무남독녀에요 . 저희 아버지 재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재산까지 상속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Con là con gái độc nhất vô nhị của Tập đoàn hóa chất Hanju. Chúng con chỉ cần mình tài sản của cha con là đủ nếu mà được nhận đến cả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người bố chồng) thì càng tốt. Còn nếu kể cả không có thì cũng chẳng sao)

Câu hỏi 6.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 **괜찮아요**"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7.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Đến bệnh viện tìm một người quen được đưa đi cấp cứu.

[Người quen của bệnh nhân] : 응급실 환자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nữ điều dưỡng : 보호자 인가요?
[Người quen của bệnh nhân] : (đột ngột dừng lại) 네.
nữ điều dưỡng : (ghi chép hết) CT촬영 결과 **괜찮습니다**.
chỉ bị xước ở mức độ nhẹ thôi.

Câu hỏi 7. Chọn một cái phù hợp với bạn theo nghĩa " **괜찮습니다**"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tốt ② đủ ③ thích hợp
④ có khả năng ⑤ không liên quan
⑥ vô sự ⑦ khác ( )

Phiếu khảo sát sự trao đổi về các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다'

● **Hãy đọc kỹ nội dung nội dung bên dưới và bộ phận gạch chân của từ '괜찮다' sau đó chọn một chức năng giao tiếp phù hợp**

1.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tôi lo lắng về việc bạn trai tôi làm việc cùng với một người con gái đã từng quen trước đây.

[bạn gái] : 너... 성아랑 일 하는 건 **괜찮겠어?**
[bạn trai] : 그것도 내 몫이지 말입니다.

Câu hỏi 1.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겠어?**"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2.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chàng trai trẻ muốn hẹn hò với một cô gái anh ta thích.

[chàng trai] : 시간 **괜찮으시면** 데이트나 하시죠?
[cô gái] : (cười tươi) 바쁘지만, 애원을 sự cầu xin 하신다면야.

Câu hỏi 2.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으시면**"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3.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có một cuộc va chạm tai nạn nhẹ với bố chồng nhưng ông yêu cầu quá nhiều tiền nên con dâu cùng bố chồng đã đến tìm người gây hại để nói chuyện.

[người gây hại] : 아유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 bố chồng) 안녕하세요.
[con dâu] : 그럼 이 수리비(phí sửa chữa)는 받는 걸로 하구요.
같이 저녁이나 드시죠?
[người gây hại] : 저녁이요?
[con dâu] : (웃으며 봉투 시아버지께 주며) 바쁘신 분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저녁 쏘세요~ **괜찮으시죠?**
[bố chồng] : (표정 biểu cảm) 아...?

Câu hỏi 3.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으시죠?**"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4.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đôi tình nhân đã chia tay (nam và nữ) tình cờ gặp nhau

[bạn gái] : (vênh mặt lên chỉ vào chàng trai bên cạnh) 어때? 이 남자 **괜찮지?**
[bạn nam] : (không xứng đáng) đơn giản 해 보여.

Câu hỏi 4.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지?**"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5.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tình huống nói chuyện về vấn đề vì không biết cơm bị thiu nên đã đưa cho bạn trai ăn

[bạn gái] : **괜찮아요?**
[người bạn trai đã ăn cơm thiu] : **괜찮아 보여요?**

Câu hỏi 5.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아요?**"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6.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cuộc họp nói về vấn đề bìa của cuốn sách

[người dẫn chương trình cuộc họp] : Đã đặt sáu cái bìa sách xuống bàn họp.
[người dẫn chương trình cuộc họp] :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Câu hỏi 6.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은**"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7.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Bà và cháu gái chuẩn bị tắt lò hơi để tiết kiệm điện

[bà nội] : 보일러는 잘 껐지?
[cháu gái] : 응. 우리 방만 껐어.
[bà nội] : (bà nội chuẩn bị quần áo cho cháu) 우리 강아지 많이 추워?
[cháu gái] : **괜찮아**. 할머니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Câu hỏi 7.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아**"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8.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bạn trai vì đã bỏ bê bạn gái nên nói lời xin lỗi

[bạn trai] : 요즘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기념일(ngày kỷ niệm)도 못 챙기고,
너 많이 화났을 거야,
내가 막 밉고 그랬지?
[bạn gái] : 에이, **괜찮아**.

Câu hỏi 8.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아**"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9.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Bố nói chuyện với con trai đang gặp chuyện khó khăn.

[Bố] : 아들아! (bố ôm con và nói) 울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너 옆엔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기대! 아빠가 다 막아 줄게.
[con trai] : 아빠~~~ 울면서 (bố ôm con trai vào lòng.)

Câu hỏi 9.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아!**."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10.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Nhân viên hẹn gặp và nói chuyện với sếp về công việc.

[nhân viên] : 그분이 오늘 서울 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약속 잡아놨는데, **괜찮으시죠?**
[sếp] : 그럼. **괜찮지**

Câu hỏi 10.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지**"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11.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Nói chuyện để hòa giải cho đối tượng cần hòa giải (đối tượng cần hòa giải : 진호. 박 교수)

[người chuẩn bị sự hòa giải] : 나는 진호 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진호(đối tượng hòa giải) :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습니다.**

Câu hỏi 11.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습니다**"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12. Giải thích về tình huống : Một y tá mang vác hành lí nặng gặp nhân viên bệnh viện có ý muốn giúp đỡ.

[y tá] : 병원 물품인데. 배달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는 길이에요.
[nhân viên bệnh viện] :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게요.
[y tá] : **괜찮은데.**
[nhân viên bệnh viện] : 이리 줘요.
(nâng cái hộp lên một cách dễ dàng)

Câu hỏi 12. Chọn một câu thích hợp với chức năng giao tiếp của từ "**괜찮은데**" ở tình huống bên trên

① xác nhận ② xin phép ③ tìm sự nhận xét
④ tráchmắng ⑤ nóiraý kiến ⑥ làm cho yên tâm
⑦ cho phép ⑧ từ chối ⑨ sự từ chối ⑩ khác( )

On the Recognition of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Gwaenchanda(okay)” - On the case of Vietnamese native speakers

For Korean learners, the vocabulary "okay" is widely used in real life, but it is difficult to grasp properly because it is used in various meanings. In particular, it has a discourse function that can be used as positive or negative in context.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okay" were properly recognized for native Vietnamese speakers through a survey and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 compared to native Korean speakers. At this time, if you rely on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the Vietnamese word "khâng sao," which is a big word for "it's okay," you are expected to lose your responsiveness to the learning of the Korean word "it's oka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at Ulsa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in May 2019, and these were 90 men and women in their 20s who entered Korea at the end of June 2018 to learn Korean. Most of them are second-degree Korean proficiency students with beginner level in Korean. The survey consisted of seven items that identified the appropriateness of perception of the meaning item of "it's okay" and 12 items of a survey on discourse functions, and five to 20 people gathered in groups to respond to the survey, and interpreters attended the survey to help the survey.

In the analysis, the meaning and function part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vided and dealt with. After presenting the overall trend of the semantic and functional parts, respectively, the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individual items were dealt with in detail. In the analysis and consideration, the response number (frequency) of 90 survey subject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100 native Korean speakers in the study of Cho Young-bo (2014)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swers of native Korean speake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exhibition is "good" and "other (not bad), question 2 is "good" and "sufficient" to set up a hospital, question 3 is "sufficient," "appropriate" and

question 4 is "appropriate."

In response, Vietnamese native speakers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Korean native speakers except for question 2. In particular, the exhibition in question 1 was "good," the food taste in question 4 was "appropriate," the time in question 5 was "possible," and the patient's condition was "safe" in question 7. It can be seen that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presented dialogue and distinguish the meaning of 'it's okay'.

In addition, in the case of Vietnamese native speakers, the overall response rate of choosing 'appropriate' was high, but the response rate of 'sufficient' was low. In addition to the high response rate of native Korean speakers who said 'appropriate', the response rate of 'appropriate' was also high in other questions. On the other hand, items with a low response rate showed a very low response rate even in items with a high response rate of native Korean speakers that were "sufficient."

In the above, Vietnamese native speakers can distinguish the meaning to some extent depending on the Korean context in recognizing the meaning of "okay."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it was easier to grasp the meaning when it was similar to 'không sao', the Vietnamese language of 'it's okay', but otherwise there was confusion.

Next, i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discourse function of 'It's Okay',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discourse function of Vietnamese more speakers was not overall smooth. First of all, the discourse function of "confirming" containing the concerns of question 1 reflected the difficulty of grasping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rate was not shown. The discourse function of "asking for permission" in question 2 seemed to have been properly recognized, and the answer to "asking for permission," "speak for opinion," and "other (compulsory)" in question 3 could be divided into three, and the discourse function of question 4 is somewhat low. Next, question 5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an error in the survey, but it showed appropriate perceptions of "speak opinions" in question 6, "relieving" in question 7, "relieving" in question 8, "other (encouraging)," and "other (forgiveness)" in question 9. Finally, it was difficult to properly recognize the discourse function in "allow" of question 10, and "reject" and question 12 in question 11 showed a more difficult pattern.

As for the discourse function of Vietnamese native speakers, the perception of the "relief" fun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smooth, followed by a

somewhat appropriate perception of "seeking permission" and "seeking evaluation." However, it was found to be very difficult to recognize the discourse function on 'rejection' and 'rejection out of courtesy'.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khongng sao' is dominant.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diversity of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in relation to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oka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guide Vietnamese native speakers that there is a meaning of 'sufficient' in addition to 'good', 'safe', and 'don't care' among the meanings of 'fine'. Alternatively, in terms of discours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guide them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function of bypassing 'rejection'.